

Project 2

meandly

정해진 길 대신 나만의 코스를 그리고,
그날의 기억을 아카이브하고 공유하는 산책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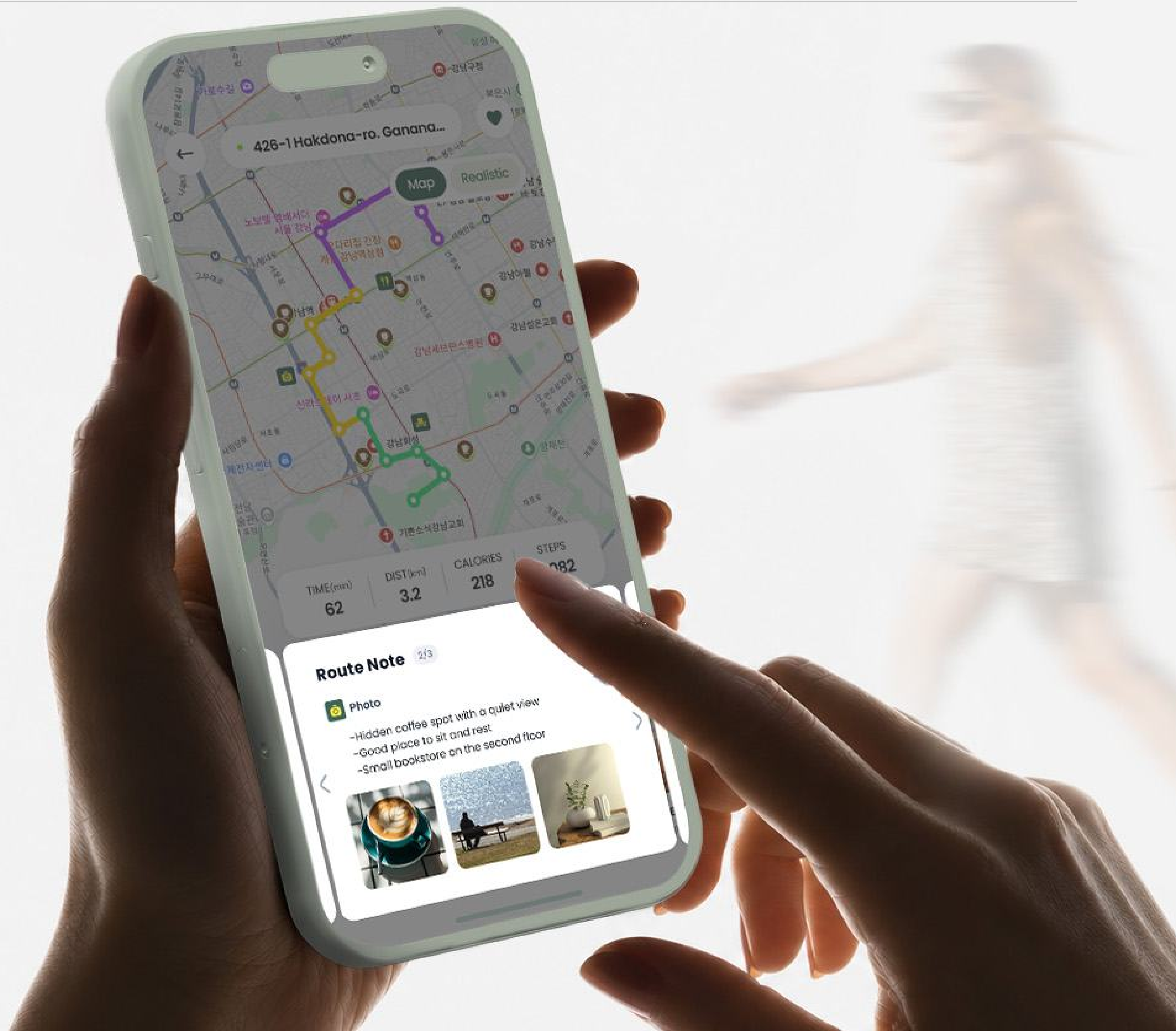
개인 프로젝트

PERIOD : 2026.01 - 2026.06

MEMBER : 프로덕트 디자이너 1명 (본인), 개발자 1명

WORK : 기획 · 유저 리서치 · UX/UI 디자인 · 디자인 시스템

이동 데이터, 수치 중심에서 경험 데이터 중심으로



기존 Activity 앱이 가진 수치 중심 콘텐츠의 한계

개인의 개성 대신 알고리즘이 예측한 범주에 사용자를 끼워 맞추면
자아 성찰 자체가 획일화됩니다.



Strava



AllTrails

기록과 성과 중심, 페이스·거리·고도 같은 수치가 우선이라 ‘운동’ 플랫폼에 가깝고,
가볍게 걷고 싶은 사람에게는 진입장벽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그 길을 어떻게 걸을지’에 대한 경험 제안은 없었습니다.

Self-tracking 실증 연구 67편 중 54편이 활동량·수면 같은 수치 피드
백을 얻는 개인 사용자에게 집중했습니다.

출처: Feng, Mäntymäki, Dhir & Salmela (2021), J Med Internet Res 23(9):e25171

걷기가 '일'이 되는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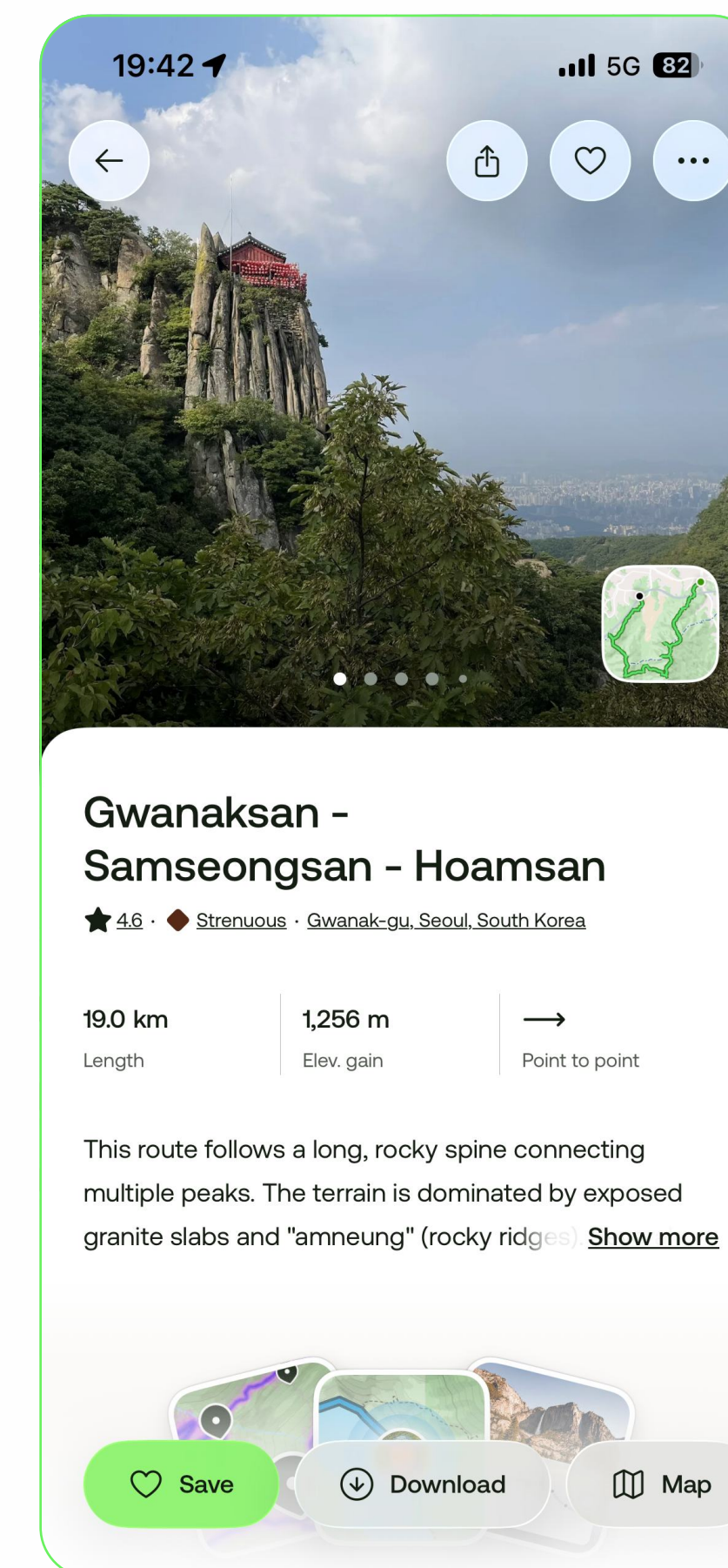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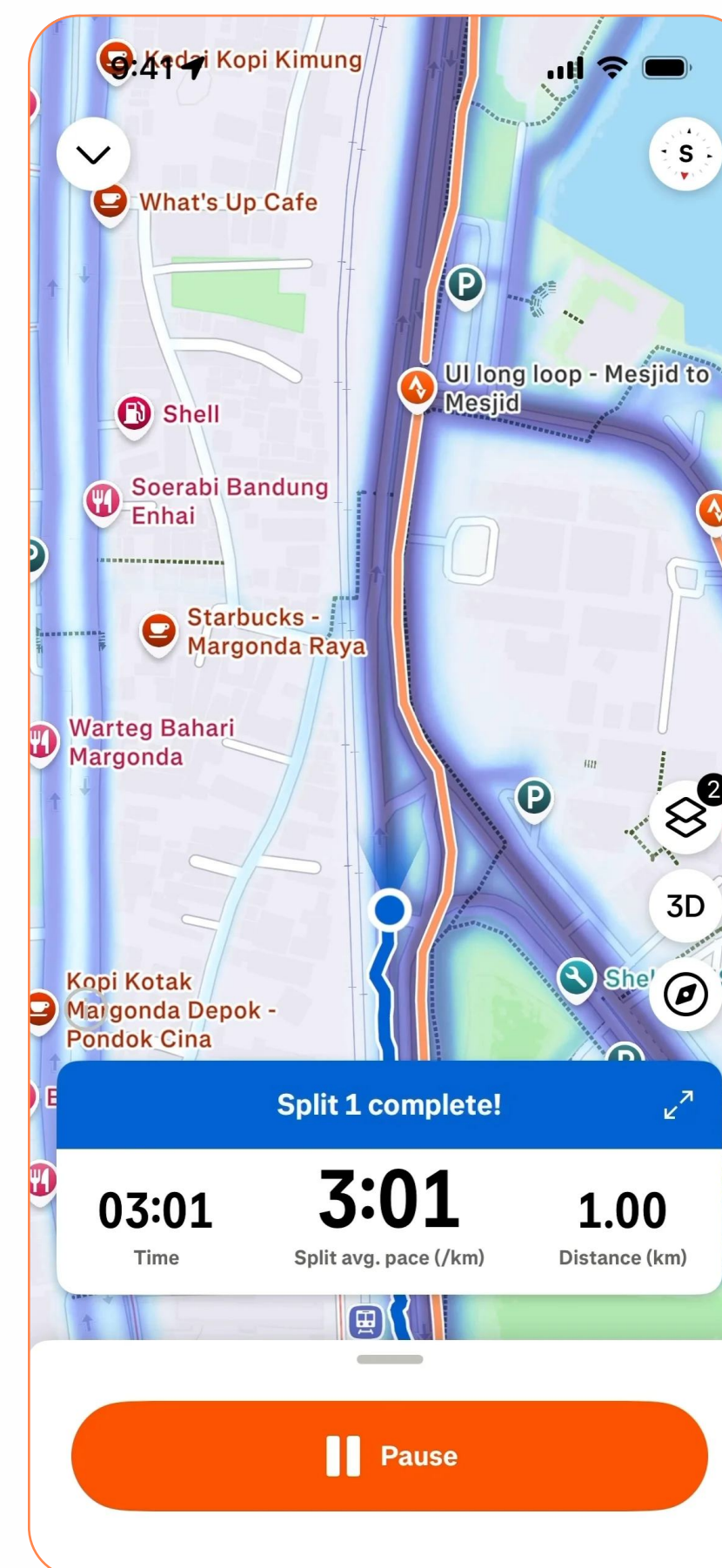
걸음 수를 볼 수 있던 참가자는
더 많이 걸었지만 걷기를 덜 즐겼고
일처럼 느꼈습니다.

출처: Etkin (2016),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2(6)

숫자가 나를 평가할 때

수치와 목표로 스스로를 평가하며
수치심·자부심·죄책감 같은
감정이 기록에 따라붙습니다.

출처: Smirnova (2020), LSE 박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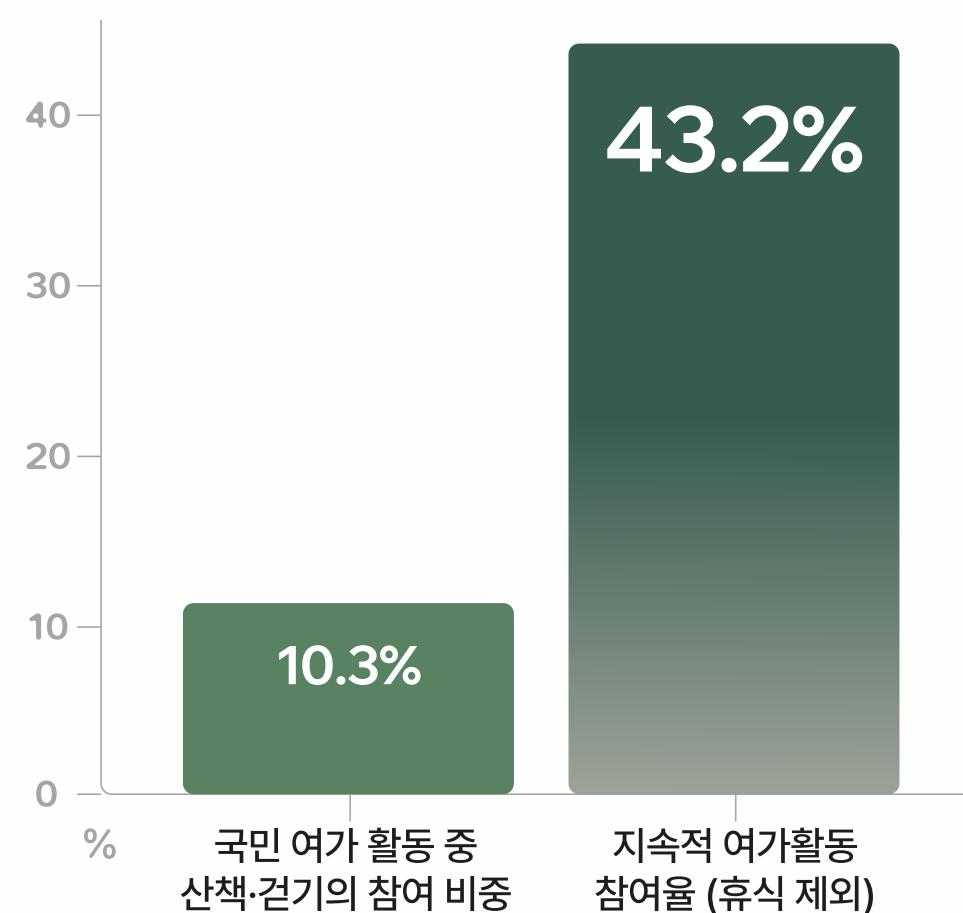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이유는 뭘까?

사용자들은 목적지보다 걷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발견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현재 발견한 공백은 정해진 목적지 없이, 감성적으로 산책 자체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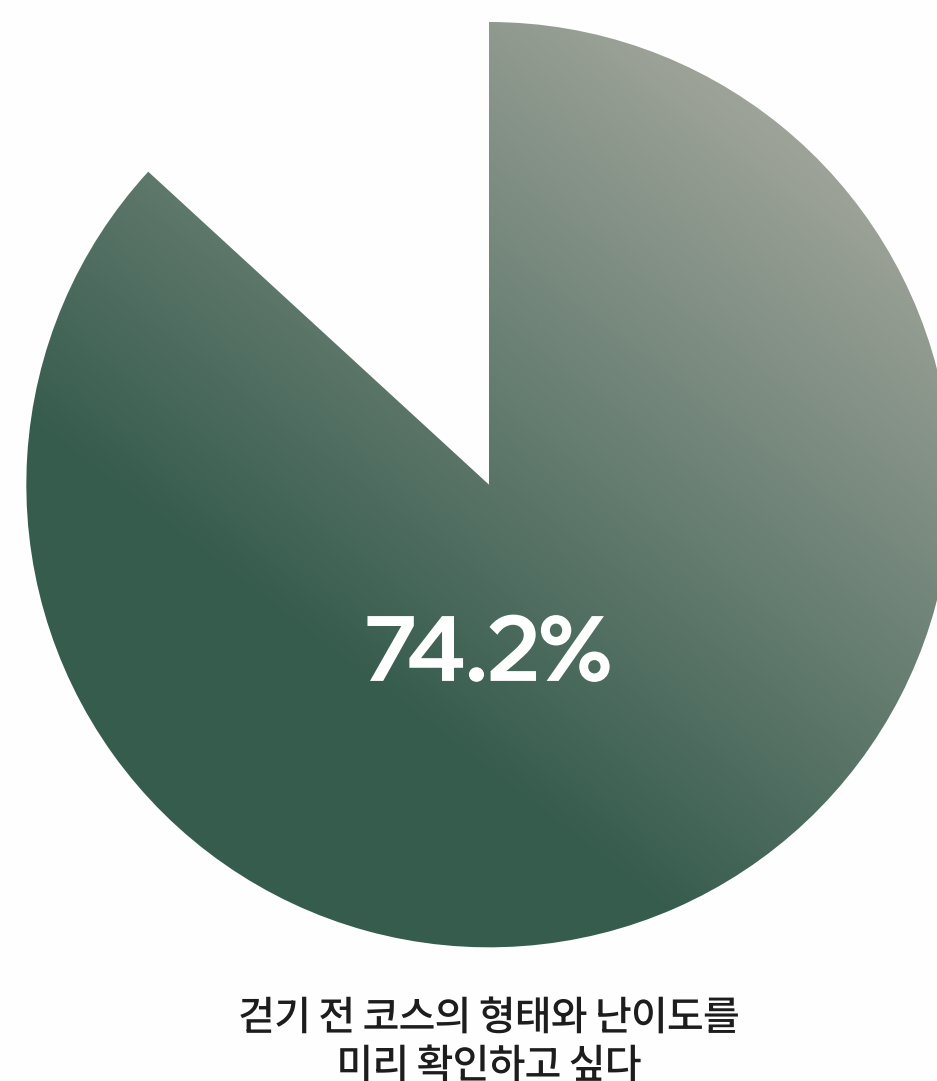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근거리 여가활동

전년 대비 +4.7%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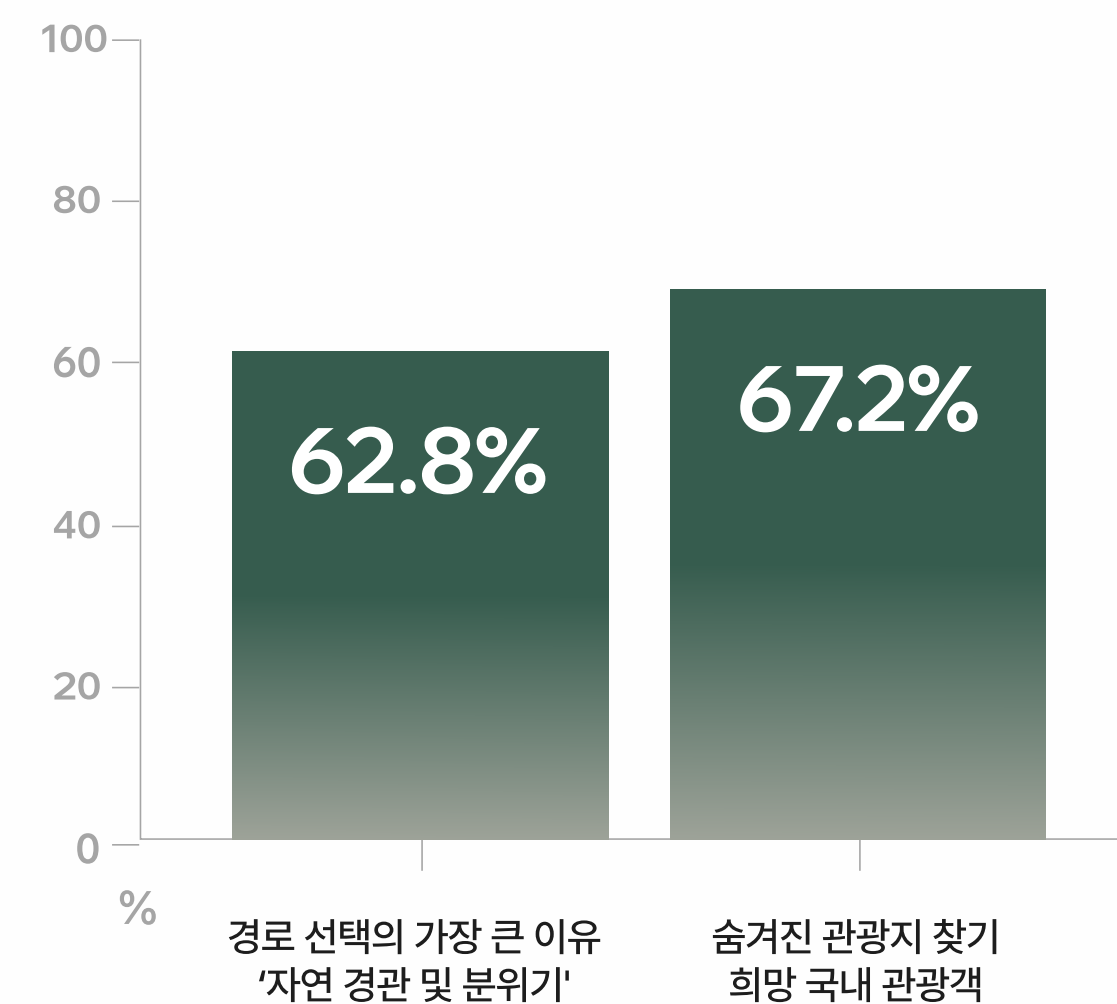
「2025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2025.12

장소보다 코스 정보에 대한 높은 의존도



「걷기여행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조사 연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장소에 대한 탐험 욕구



「2024 국내관광 트렌드 R.O.U.T.E.」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2023.12

각자의 방식으로 걷는 사람들

데스크 리서치의 세 가지 발견(근거리 여가·코스 정보 의존·새로운 장소 탐험)에서 산책 동기를 '분위기·즉시성·발견'으로 나누고, 유형별 UX 방향을 정했습니다.

A 길의 분위기를 먼저 보여주는 Line-first 탐색으로, 목적지가 아닌 경로 자체를 고르게 하는 방향

B 위치·시간 기반 추천과 원탭 시작으로, 탐색 없이 바로 걷게 하는 방향

C 걸은 길을 노트·사진과 함께 루트로 발행해, 내 기록이 다른 사람의 코스가 되는 방향

가설 A : 힐링 산책러

사용자는 목적지가 아닌 '길 위의 경험'에 집중하여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

Line-first 경험 철학

“이 길이 평화로워 보여,
오늘은 여기로 가봐야겠다.”

#자연친화성

#사진가치

#혼잡회피

#리뷰의존

- 조용한 골목·자연 위주 선택
- 긴 설명보다는 짧은 후기와 사진을 보고 코스 결정
- “괜찮아 보이면 일단 가본다” 타입

경로를 고르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 경관 및 분위기' (62.8%)로, 사용자는 목적지보다 길 위의 분위기를 기준으로 코스를 선택함.

가설 B : 루틴 산책러

일상 여가는 실행 가능성이 핵심이라,
고민 없이 바로 걷고 싶을 것이라는 가설

One Tap Start 즉시성

“일정이 바쁘지만, 가볍게 바로
걸을 수 있는 코스가 필요해.”

#검증된코스선호

#예측가능

#반복사용

#생활동선

- 하루 일정 중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산책
- “30분 / 한 바퀴 / 실패 없는 루트” 중요
- 새로운 길보다는 확실한 루틴 유지에 집중

지속적 여가활동 참여율이 43.2%로 늘었고, 74.2%가 걷기 전 코스의 형태와 난이도를 미리 확인하고 싶어 함. 매일 걷는 사람일수록 '실패 없는 검증된 코스'를 바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함.

가설 C : 기록 공유 산책러

내가 걸은 길이 공유되면,
다른 사람의 다음 코스가 될 것이라는 가설

UGC 커뮤니티 기반

“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남기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분위기중시

#아카이빙

#공유욕구

#콘텐츠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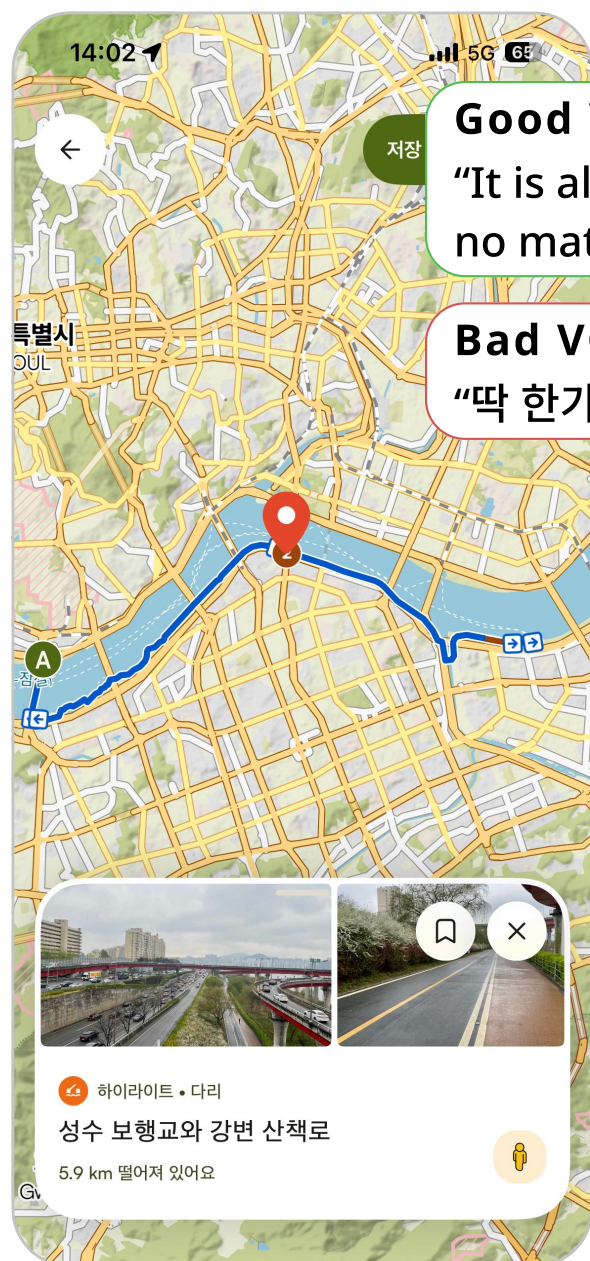
- 내가 발견한 예쁜 길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싶음
- 완주보다 분위기·스토리·장면을 더 중요하게 여김
- 앱을 “도구”라기보다 아카이브 공간으로 인식

67.2%가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찾고 싶어 함. 다른 사람이 발견하고 기록한 길 자체가 탐색 콘텐츠가 될 수 있음.

세 가설을 먼저 구현한 서비스들

각 가설의 핵심 경험을 이미 잘 구현한 서비스를 분석해, 방향이 유효한지 확인했습니다.
세 서비스 모두 시작과 공유까지의 단계를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가설 A



Good VOC

"It is always beautiful at Heidsee, no matter what time of year!"

Bad V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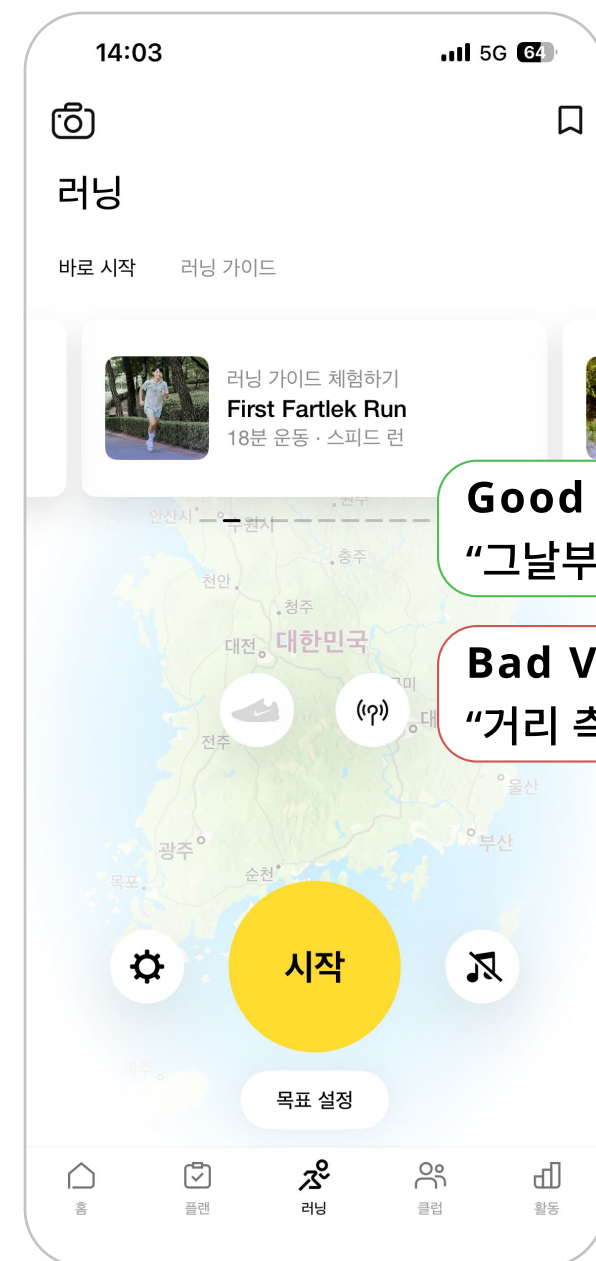
"딱 한가지 국내주소검색이 잘 안되서 불편합니다."

Komoot (Highlights)

다른 사용자가 추천한 지점을 사진과 함께 경로 위에 보여줌.
거리·고도보다 '그 길에서 볼 것'으로 코스를 판단하게 함.

→ meandly의 Route Note·Line-first 탐색 근거

가설 B



Good VOC

"그날부터 매일 다시 댄 지 두 달째입니다."

Bad V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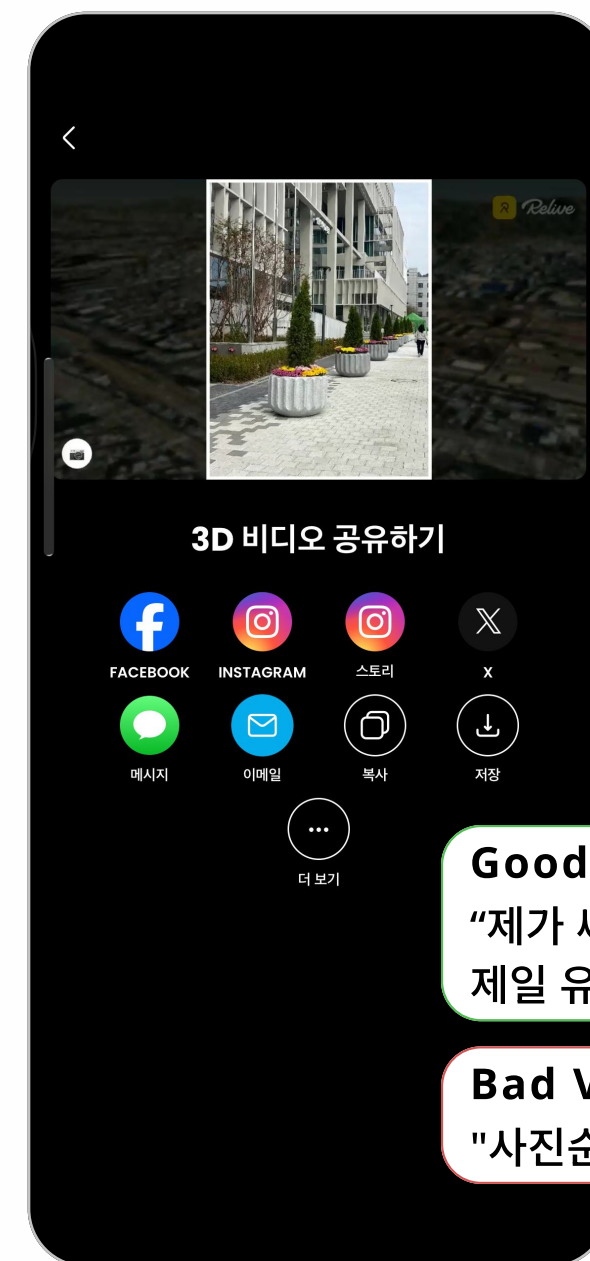
"거리 측정 오차에 대한 불만이 반복됨"

Nike Run Club

앱을 열면 바로 큰 Start 버튼이 있고, 목표 설정은 선택 사항.
시작까지의 결정을 최소화해 루틴 사용자의 진입 부담을 줄임.

→ One Tap Start·Start Walk 근거

가설 C



Good VOC

"제가 써본 산행 앱 중에서 솔직히 저한테는 제일 유용하고 너무 좋아요."

Bad VOC

"사진순서 바꿀수 있게 해주세요"

Rel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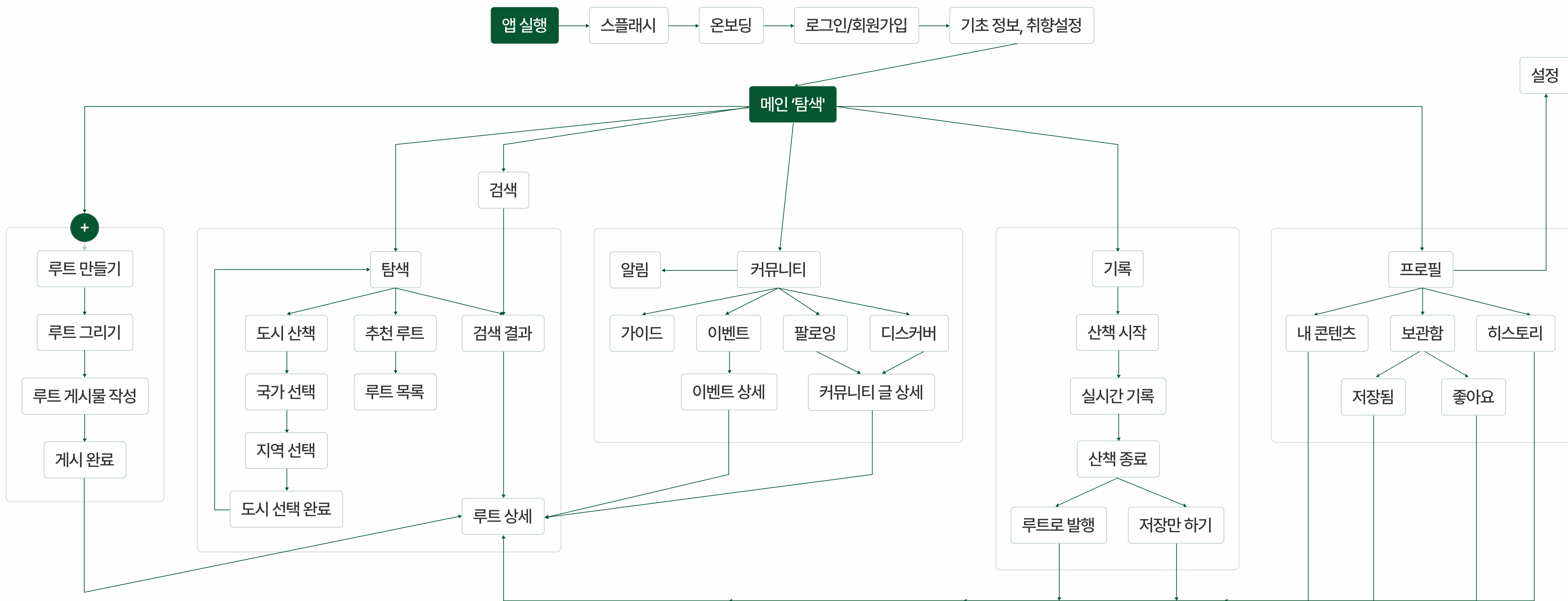
산책, 등산이 끝나면 경로와 사진을 묶어 영상을 자동 생성해 바로 공유. 원하는 사진만 넣거나 순서를 바꿀 수 없다는 요청이 반복됨.

→ Route Publishing·자동 메타데이터 근거

/ 사진 선택의 한계 → Route Note로 보완

걷기 전, 길을 먼저 설계했습니다

하단 탭(탐색·커뮤니티·기록·프로필) 구조 그대로 사용 흐름을 설계했습니다.
길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인 '지도에 그리기'와 '걸으면서 기록하기'는 모두 루트 상세로 모여,
내가 만든 길이 곧 다른 사람이 탐색하는 콘텐츠가 되도록 연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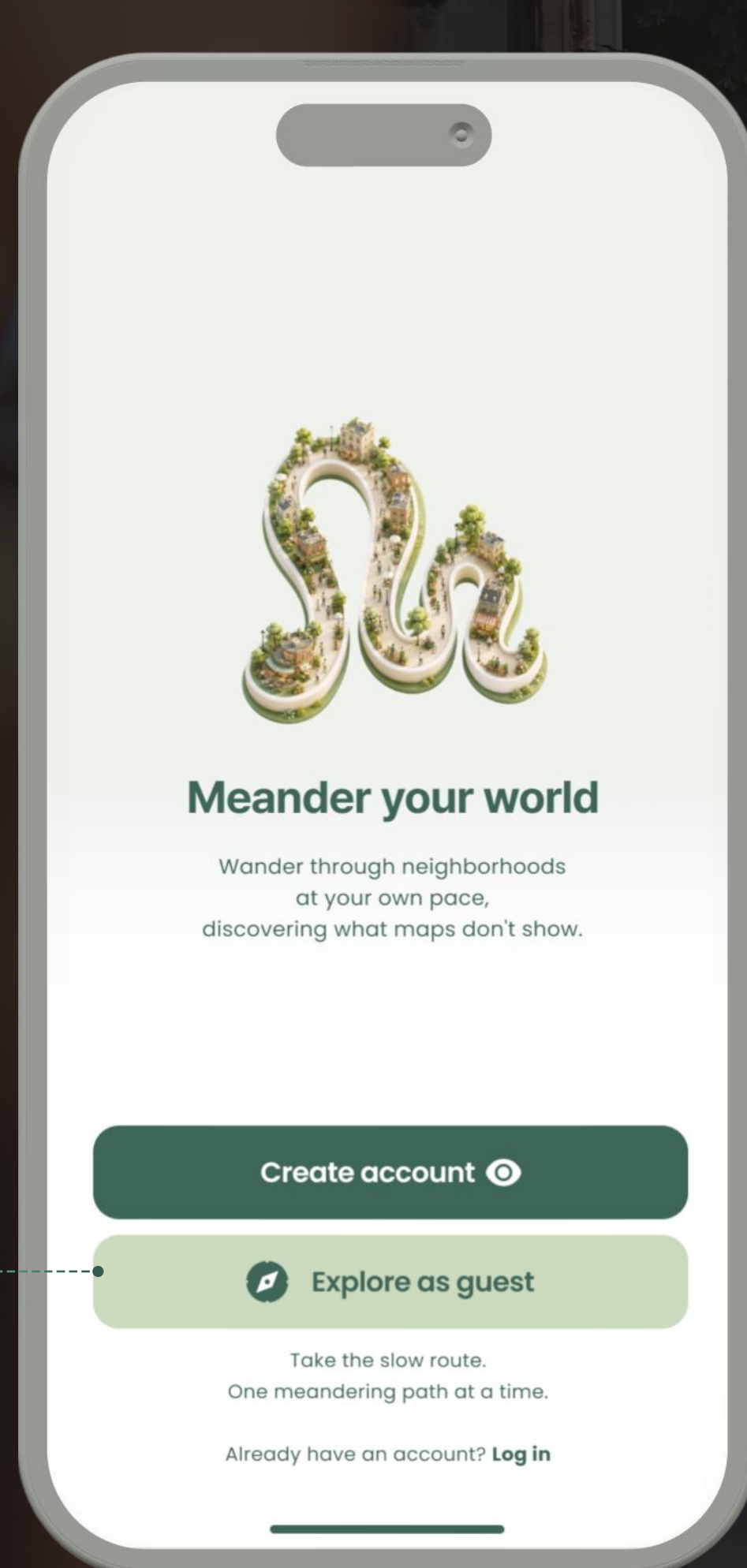
산책은 가볍게, 시작도 가볍게

계정 없이도 앱의 가치를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게스트 탐색과 소셜 로그인으로 시작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첫 진입을 산책처럼 가볍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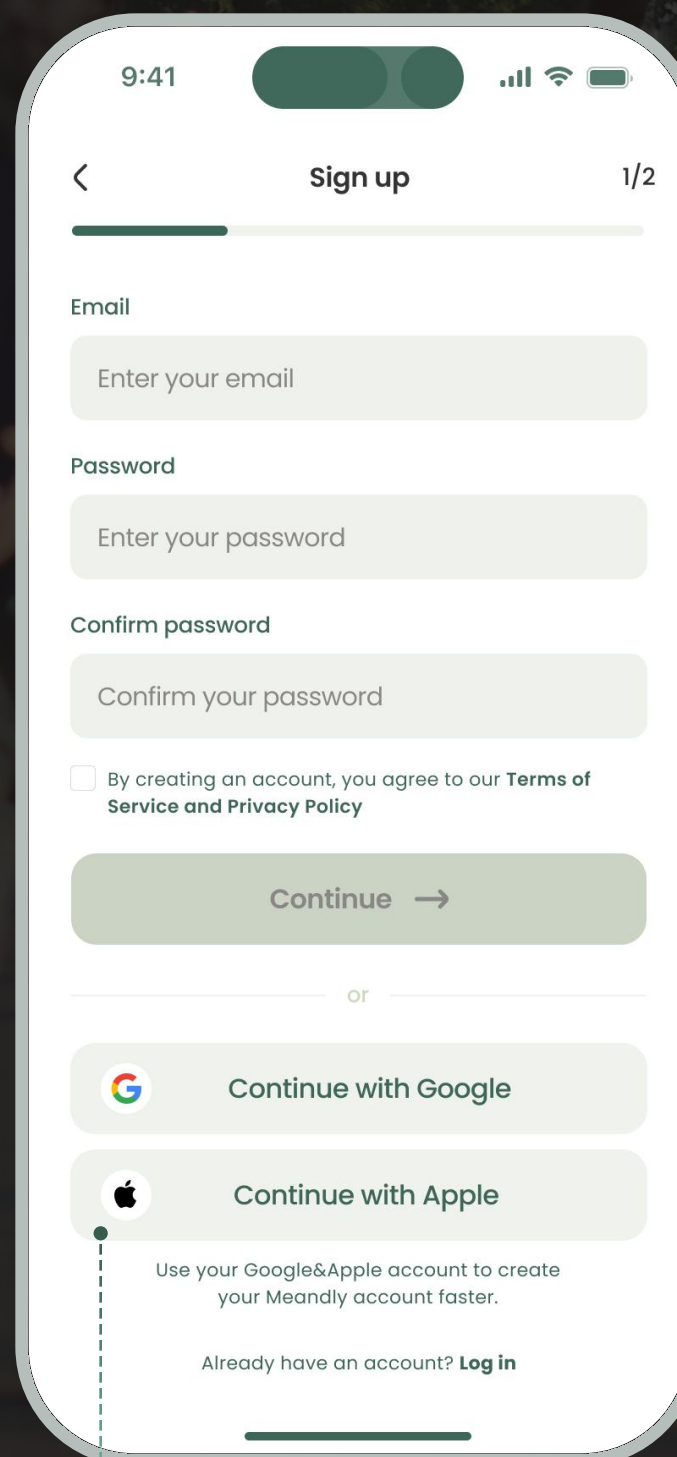
신규 사용자가 계정 생성 전 앱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Guest 탐색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주요 CTA보다 시각적으로 낮은
위계의 Secondary 버튼으로 배치했습니다.

Guest 탐색 옵션



가입

Sign up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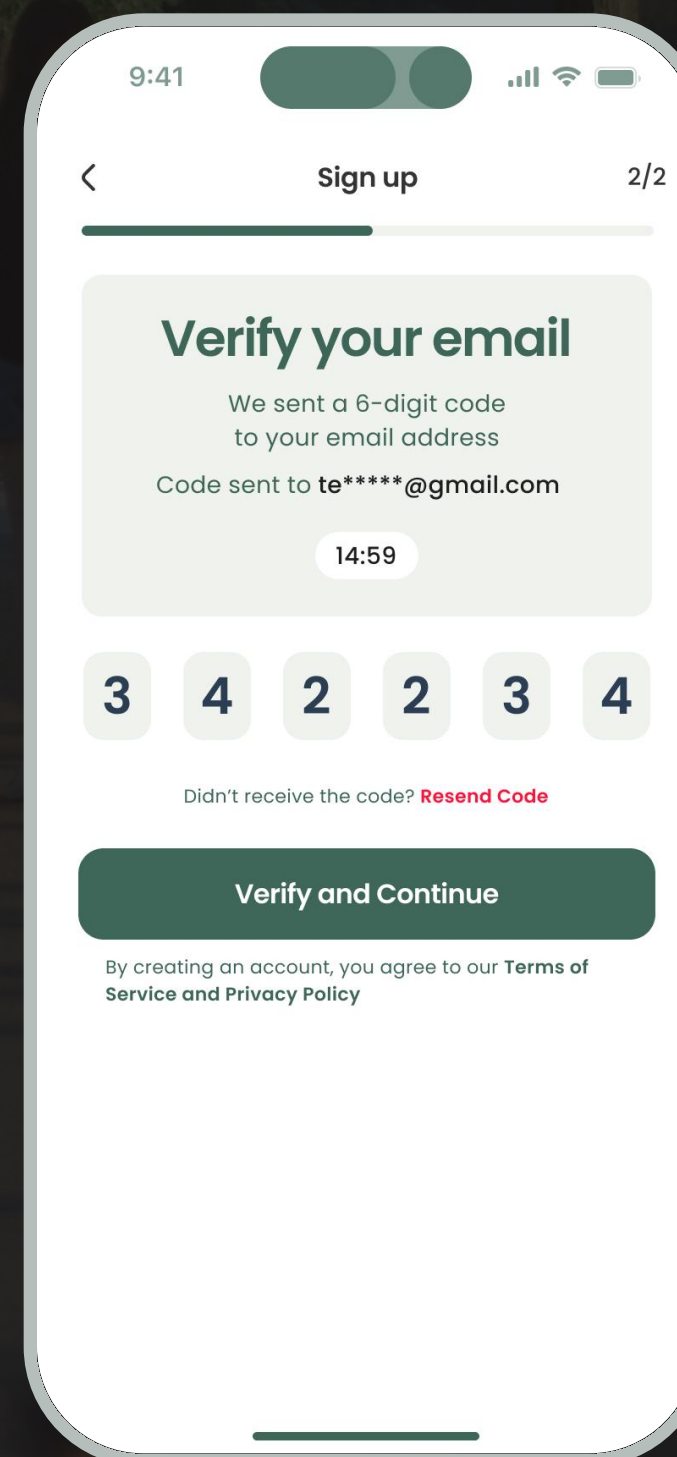


Social Login

가입 과정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가입 전환율을 높이도록 설계했습니다.

OTP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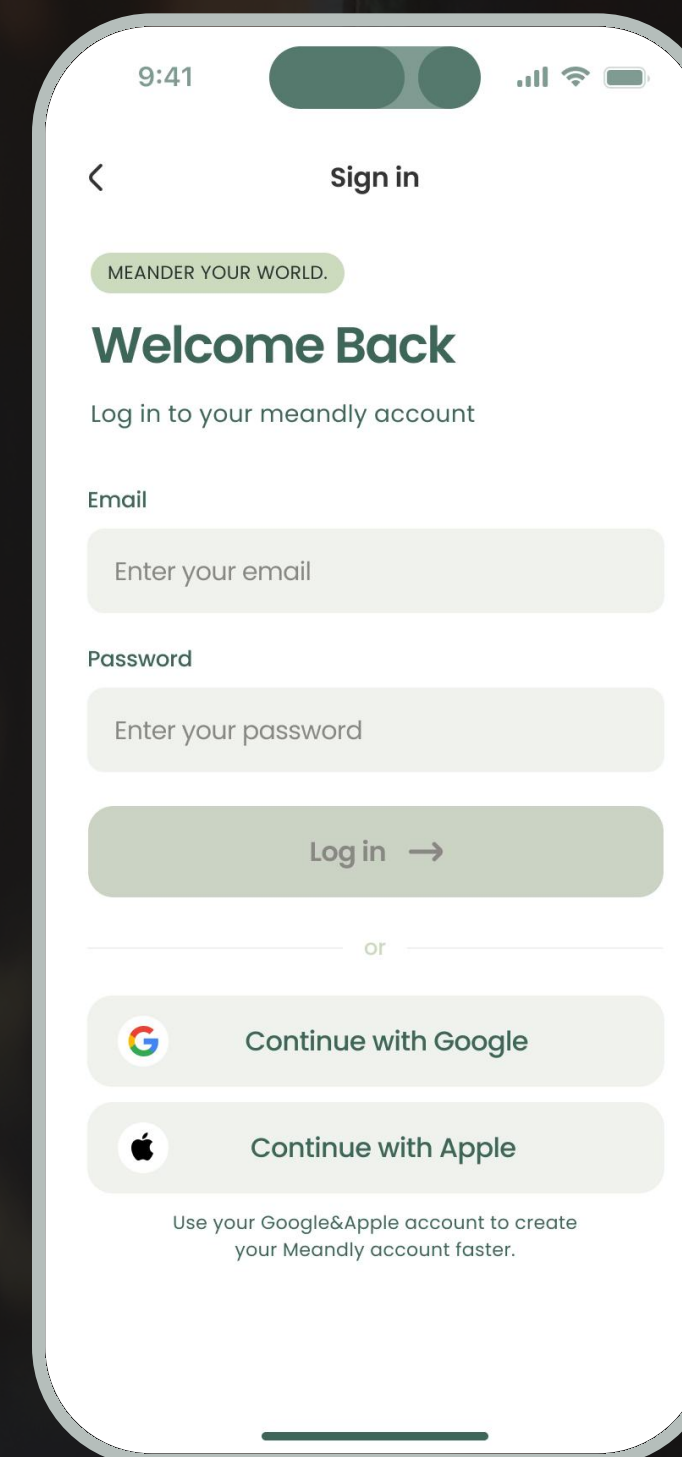
Verify



인증을 미루지 않고 완료하도록
타이머의 실제 역할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로그인

Sign in



기존 사용자를 위한 간결한 로그인 화면으로
소셜 로그인 옵션을 동일하게 제공해 재방문
시에도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어디로 걸을지 고민하지 않도록 지금, 여기서 바로 시작

위치 기반 컨텍스트로 탐색의 피로 없이 바로 시작

현재 위치를 자동 감지해 주변 산책로를 즉시 제안합니다.
어디에 있던 지금 걸을 수 있는 루트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위치 기반 컨텍스트

Content Tog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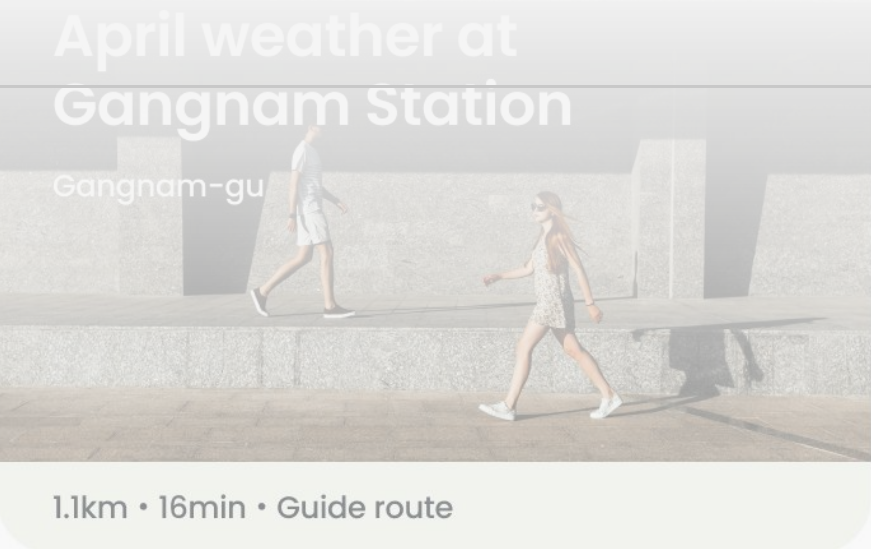
아이콘 Click 시 지도↔사진 이미지가
함께 바뀌는 토글 기능입니다.

빠른 취향 수집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관심 있는 항목을 빠르게
선택하게 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One Tap Start

사용자의 취향과 산책 패턴을 기반으로,
어울리는 위치를 자연스럽게 추천합니다.
시간, 분위기, 이동 거리까지 고려해 복잡한
탐색 없이 바로 걸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TRIP ID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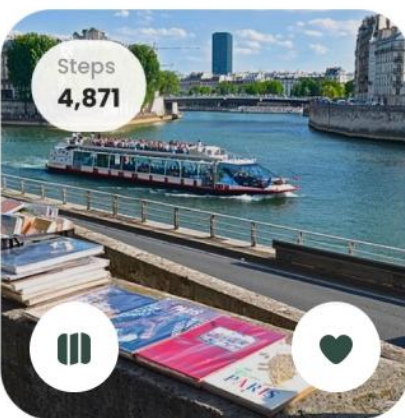
Plan Paris walks

Save inspiration for another city when the next trip st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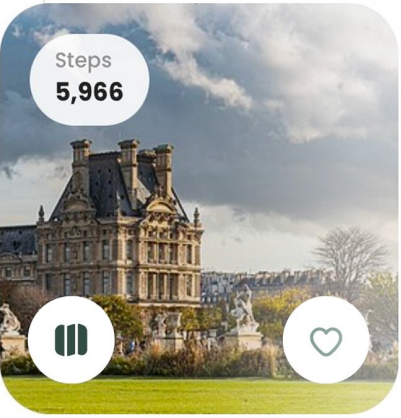
Paris Louvre to Tuileries Starter Walk

Hall Napoléon - Sous la Py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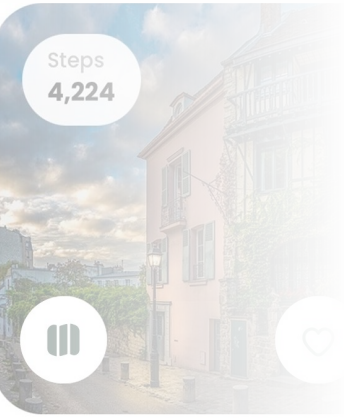
Paris Seine Islands Walk

1 Rue Edouard Colonne, 750...



Paris Luxembourg Garden Reset

R8WP+JX, 75006 Paris, Fr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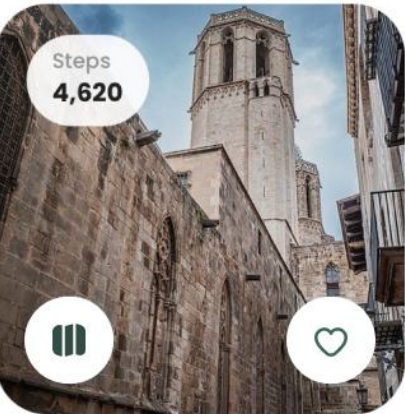
Paris Montmartre Sunset View Walk

67 Rue de Provence, 7500...

좌우로 스크롤하여 추천 루트를 확인하세요.

Plan Barcelona walks

Start with walks tied to the place you are viewing.



Barcelona Gothic Quarter Starter Walk

Carrer del Bruc, 111, Eix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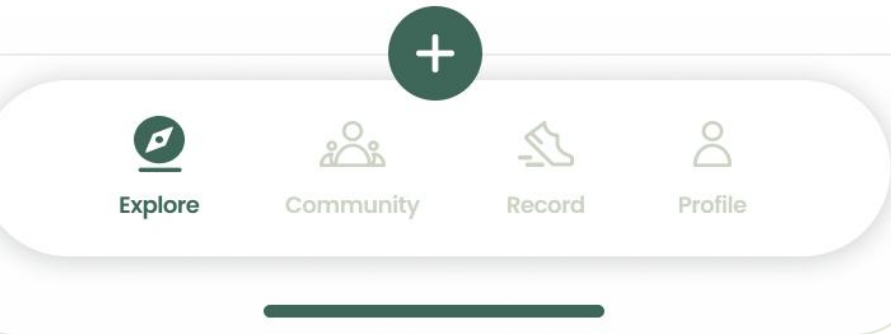


Barcelona El Born Heritage Walk

Carrer del Rosselló, 249, Sex...

국가별 산책로 탐색

사용자가 원하는 분위기와 목적에 맞는
산책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의 코스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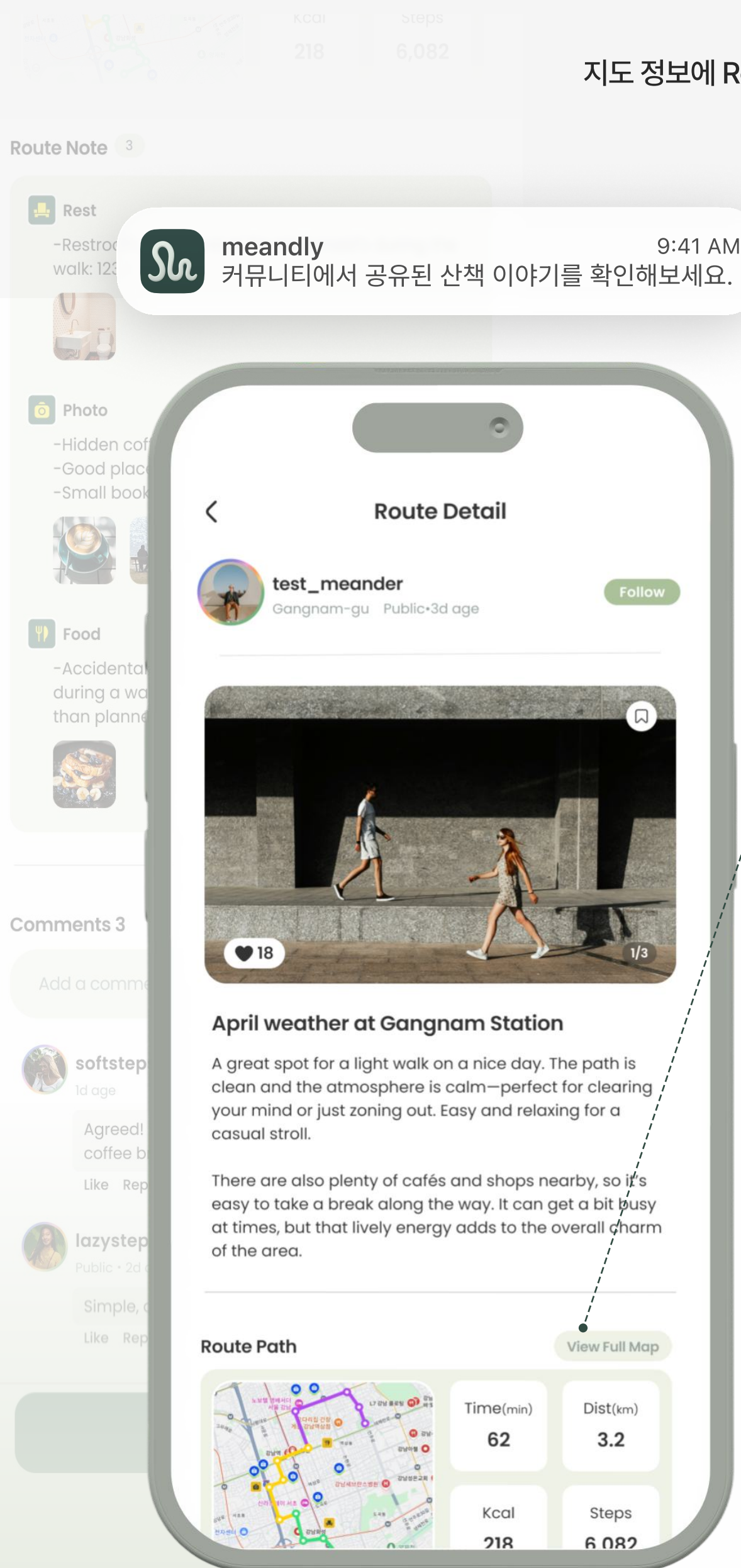


경로 탐색을 콘텐츠 경험으로

지도 정보에 Route Note와 커뮤니티 후기를 더해, 경로 탐색 자체가 콘텐츠 소비 경험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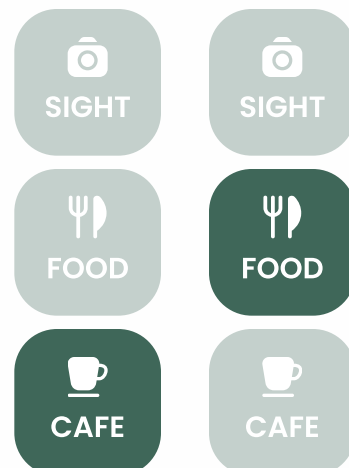
숫자 대신 장면으로 길을 고르다

경로 위에 다른 산책러의 Route Note와 주변 장소를
겹쳐 보여주어, 길을 거리·시간이 아닌
'그 길에서 만날 장면'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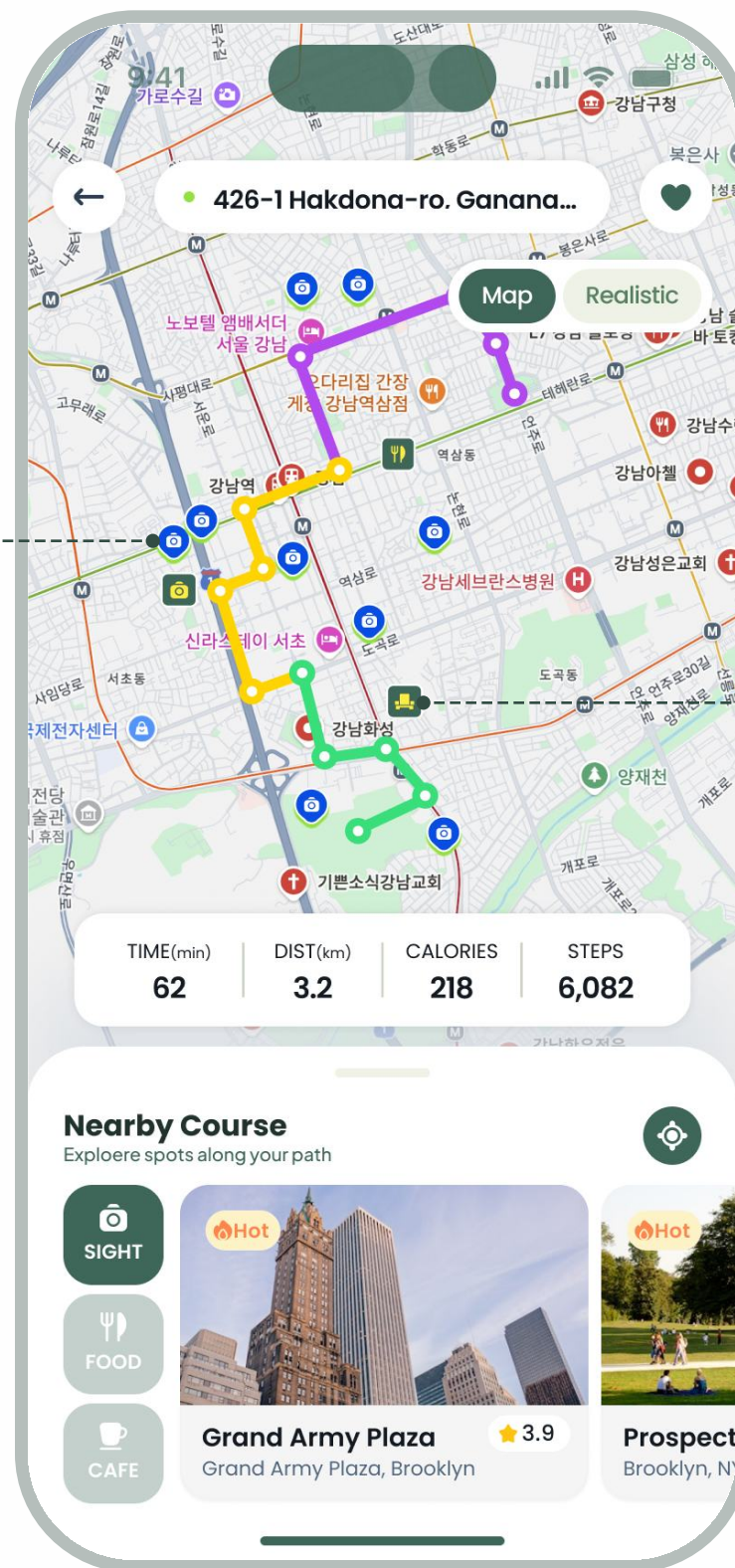
Nearby Course

상태 버튼에 따라
지도의 아이콘이 변경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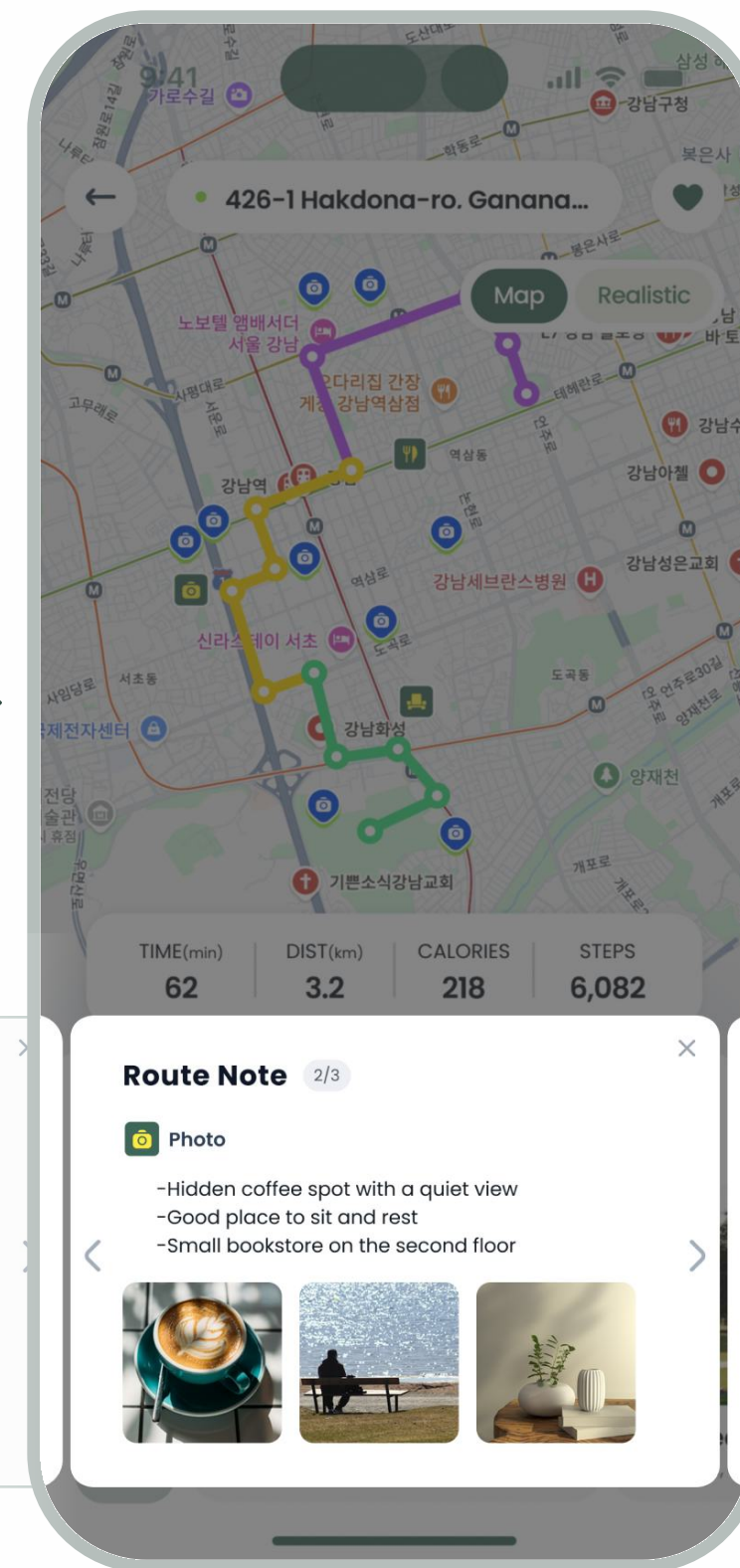
Detail Map

View Full Map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화면으로,
다른 사용자의 메모와 요즘 뜨는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Carousel Route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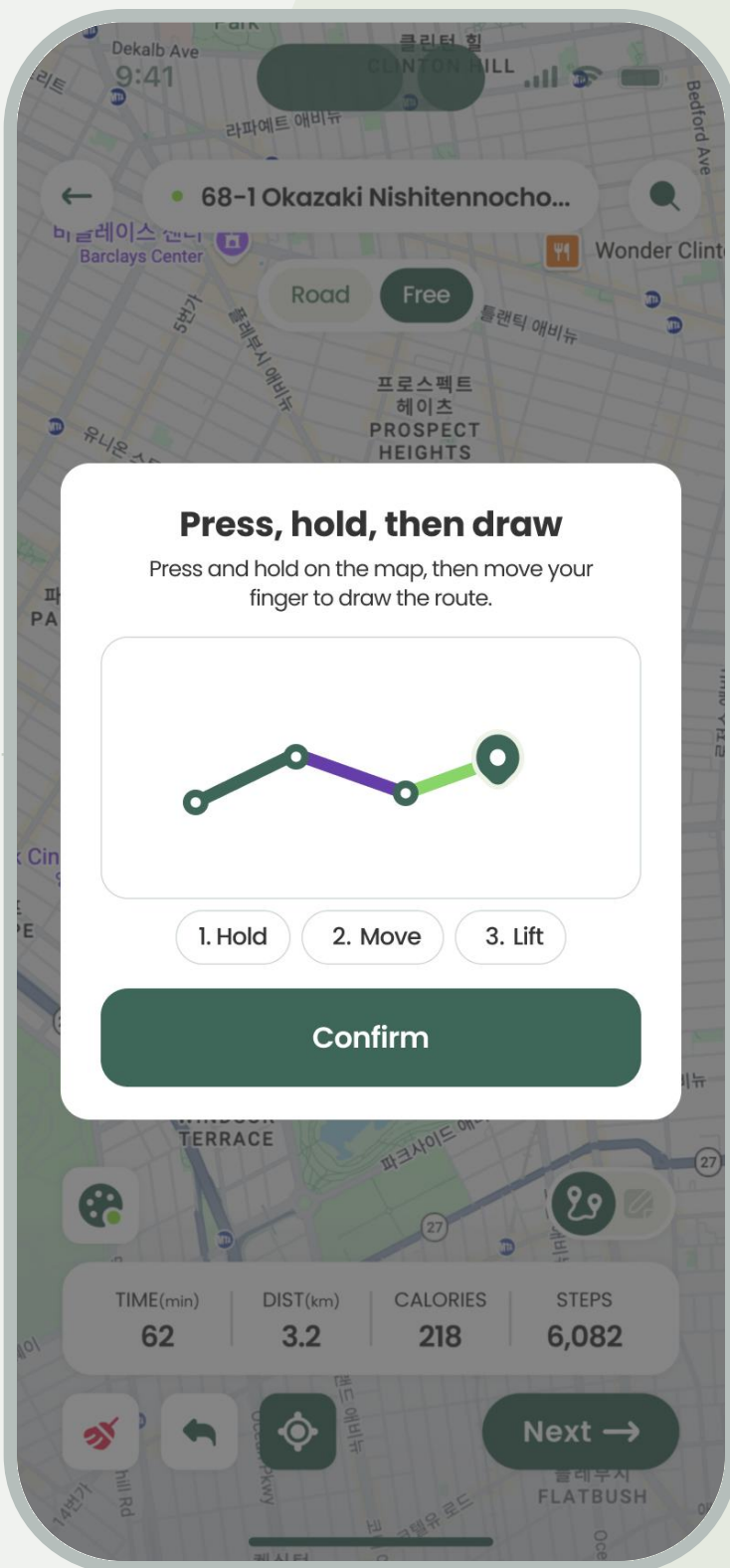
사용자가 남긴 메모 아이콘 클릭 시 스와이프 기능을 통해
작성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길보다, 내가 만든 길

Getting Star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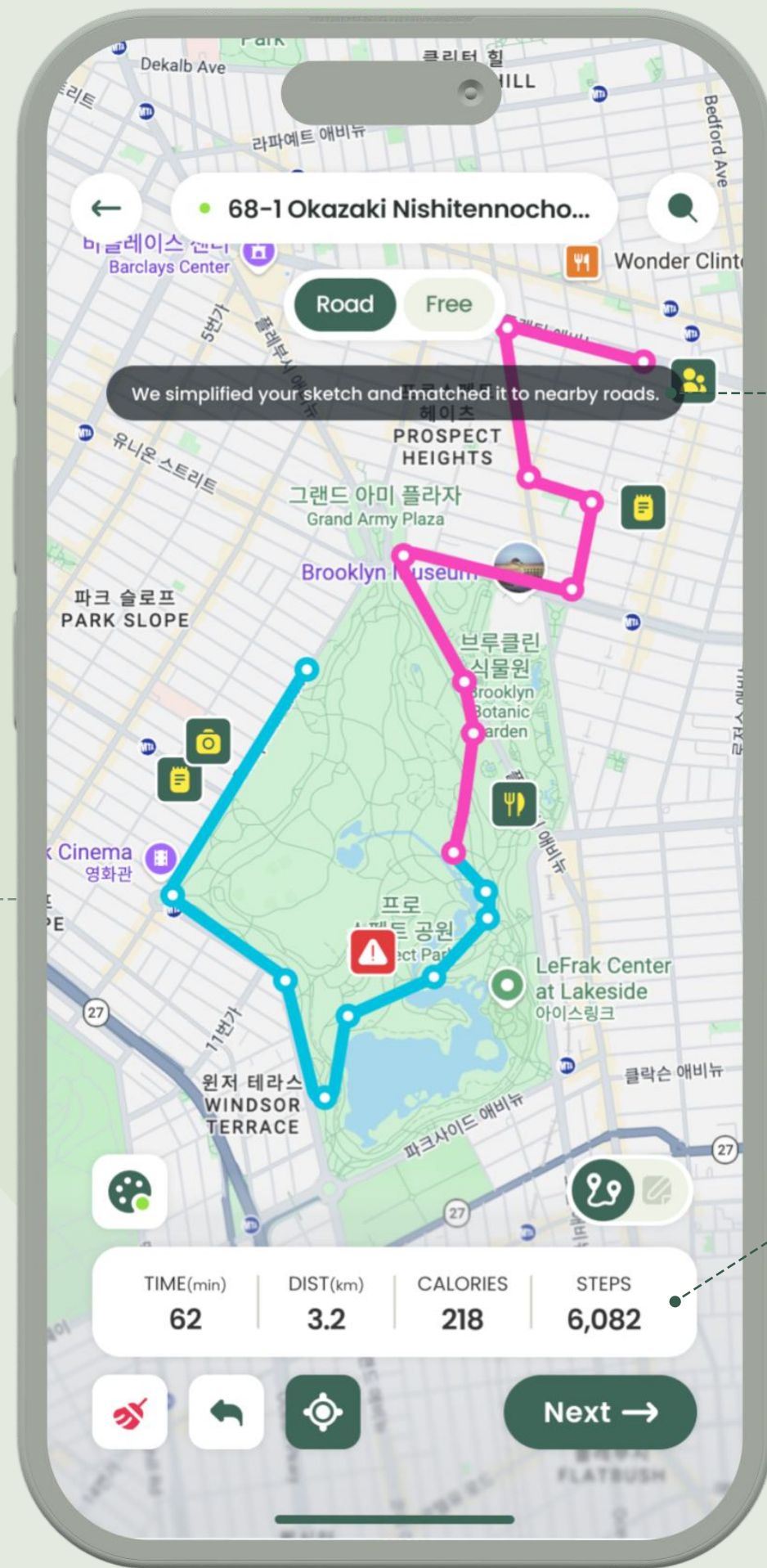
처음 앱을 접한 사용자가 루트 그리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3단계 온보딩 모달로 첫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했습니다.



Road / Free 토글

도로 위를 걷는 산책과
공원·골목 등의 경로를 모두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설 A : 길 위의 경험을 담겠다는 'Line-first' (Free)
가설 B : 루틴 산책러가 원하는 '실패 없는 루트'(Road)



토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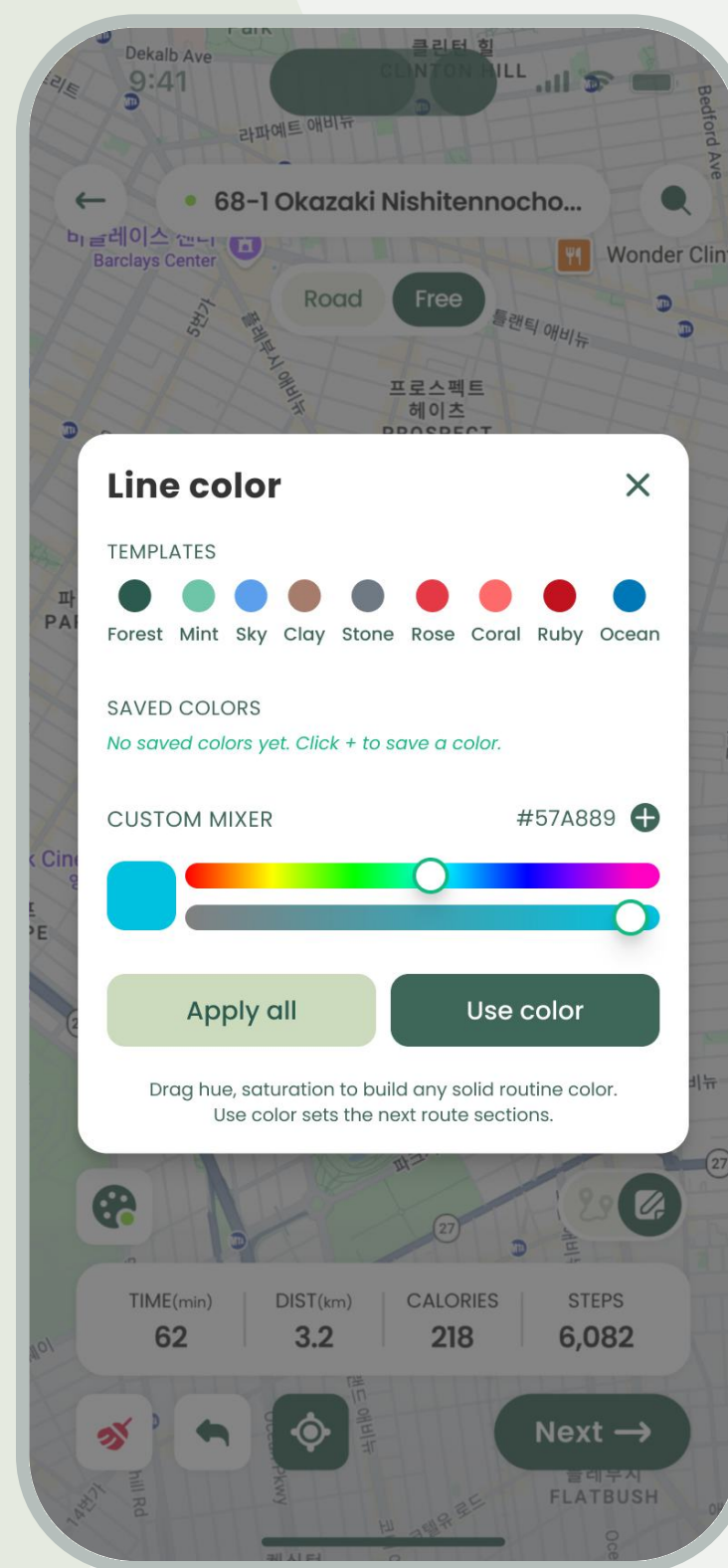
Road 모드 버튼 클릭 시
루트가 가장 가까운 도로에
자동 스냅됨을 토스트로 알려줍니다.
(다음 작업을 막지 않기 위함)

실시간 통계

루트를 그리는 중
시간·거리·칼로리·걸음 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산책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Road Color Custom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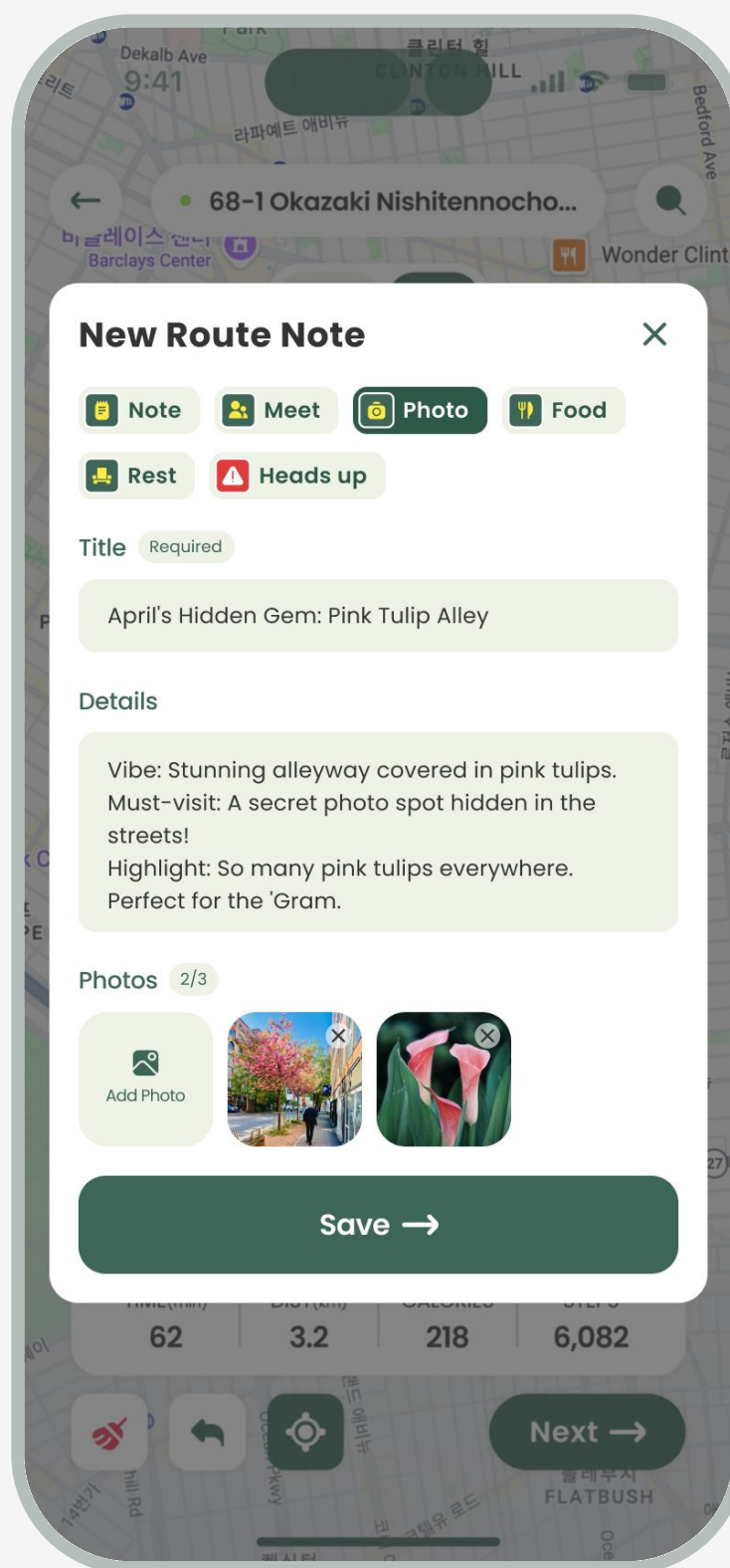
구간마다 다른 기억과 감정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내 산책길을 더 의미 있게 기록할 수 있도록
색상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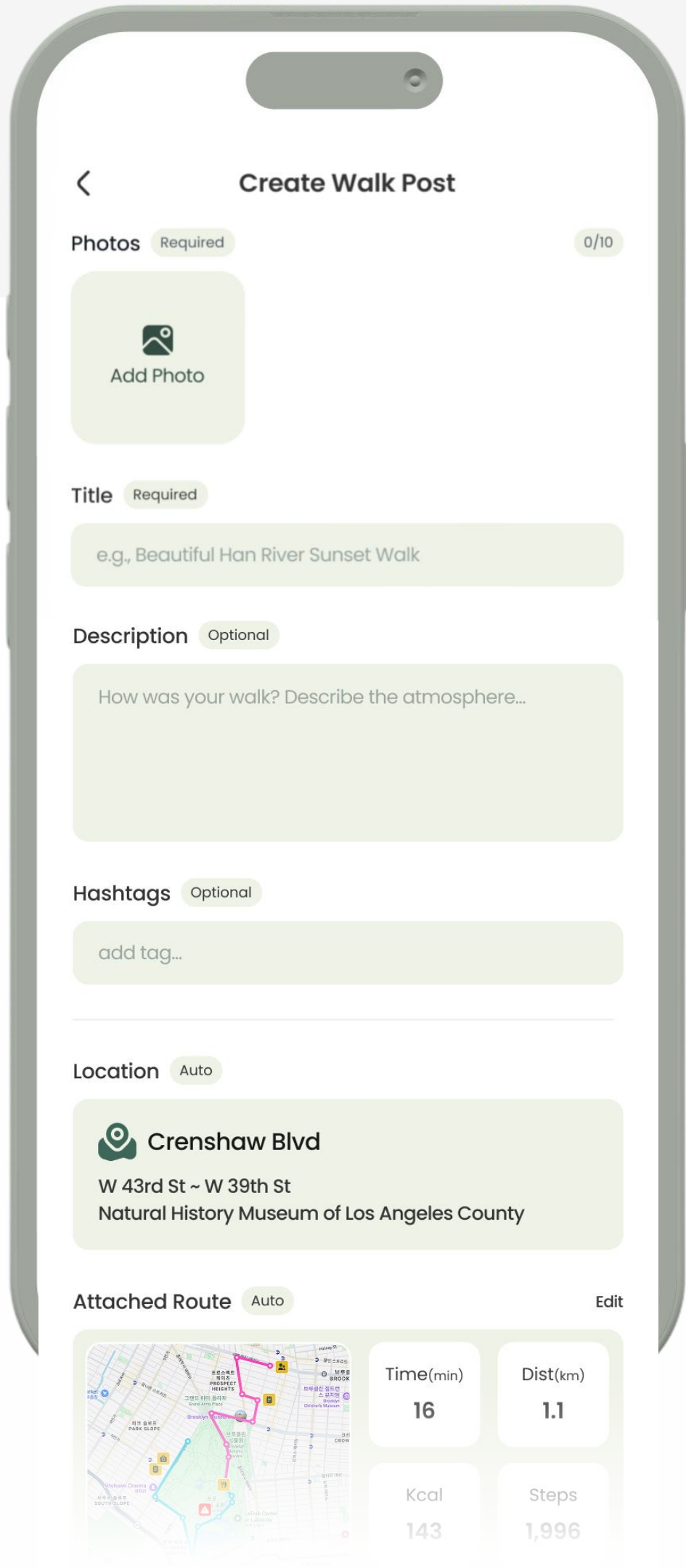
Map/Memo 토글

Location-based Notes

산책 중 마주치는 순간을 6가지 카테고리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루트를 다시 봤을 때 그날의
맥락을 빠르게 떠올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내 산책길을 기록하고, 공유하다



Description Optional

How was your walk? Describe the atmosphere...

Hashtags Optional

add tag...

Location Auto



Crenshaw Blvd

W 43rd St ~ W 39th St
Natural History Museum of Los Angeles County

Attached Route Auto

Edit



Time(min)

16

Dist(km)

1.1

Kcal

143

Steps

1,996

Route Note Auto

Edit



Meet

Met up with a friend in front of the department store around 10 in the morning.



Memo

Met up with a friend in front of the department store around 10 in the morning.



Food

The burger arrived still warm from the grill, and the smell of toasted buns made me stay longer than planned.



Public Post

Visible to everyone in the community



Post Walk



Auto-filled Metadata

이전 산책 단계에서의 기록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Edit Flow

게시 전 언제든지 이전 단계로 돌아가 루트(Route Draw)와 메모를 수정할 수 있어, 처음부터 다시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Spotlight Effect

수정할 영역만 Focus하고 나머지는 Dim 처리해, 시선을 모아 메모를 빠르게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Meet

Met up with a friend in front of the department store around 10 in the morning.

Memo

Met up with a friend in front of the department store around 10 in the morning.



Add Photo

취소

저장

Food

The burger arrived still warm from the grill, and the smell of toasted buns made me stay longer than plan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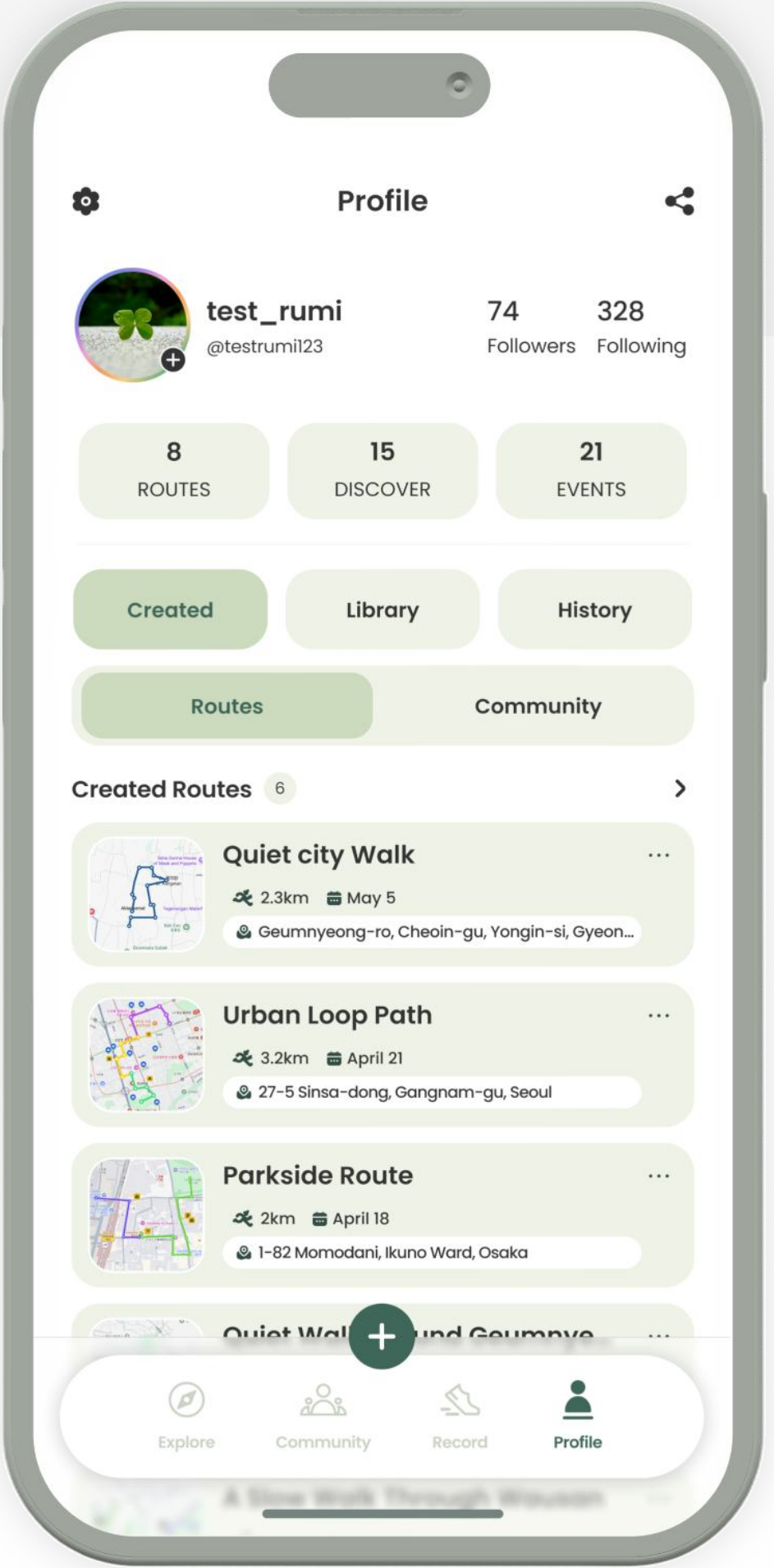


Public Post Toggle

공개 여부의 기본값을 비공개로 두어 기록과 공개를 분리했습니다. 원할 때만 토글 하나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행동 기반 분류

내가 만든 길 · 저장한 길 · 걸은 길을 기준으로 Created · Library · History를 나누고, 각 탭 안에서 Routes / Community로 다시 구분해 다시 걷고 싶은 길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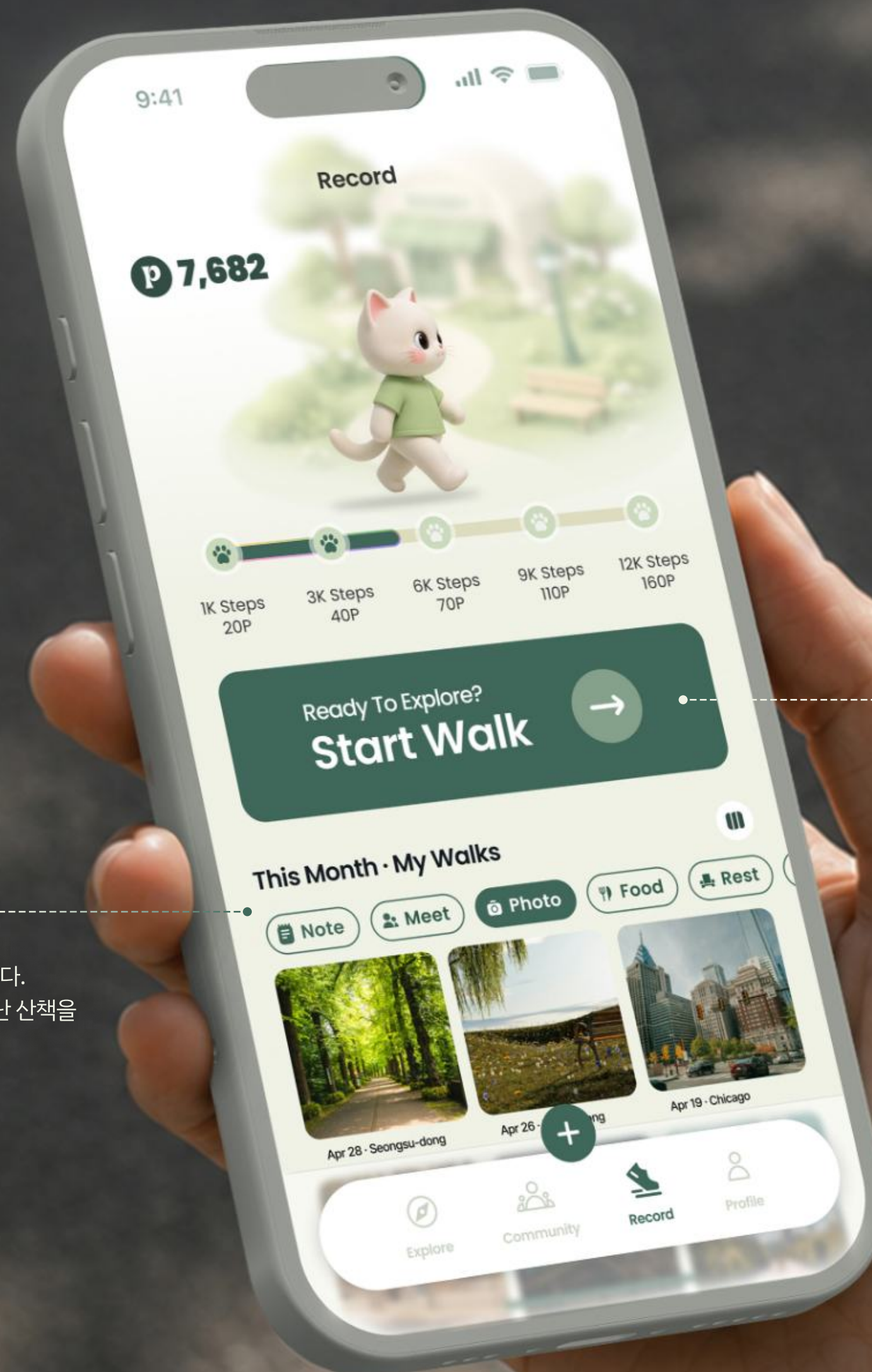
걷는 그대로, 나만의 산책로가 되다

계획하지 않은 길도, 누군가의 코스가 되다

정해진 코스 없이 걷고 싶을 때는 Record로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기록합니다. 산책이 끝나면 바로 Route로 발행할 수 있어, 미리 계획하지 않은 길도 다른 산책러가 따라 걸을 수 있는 코스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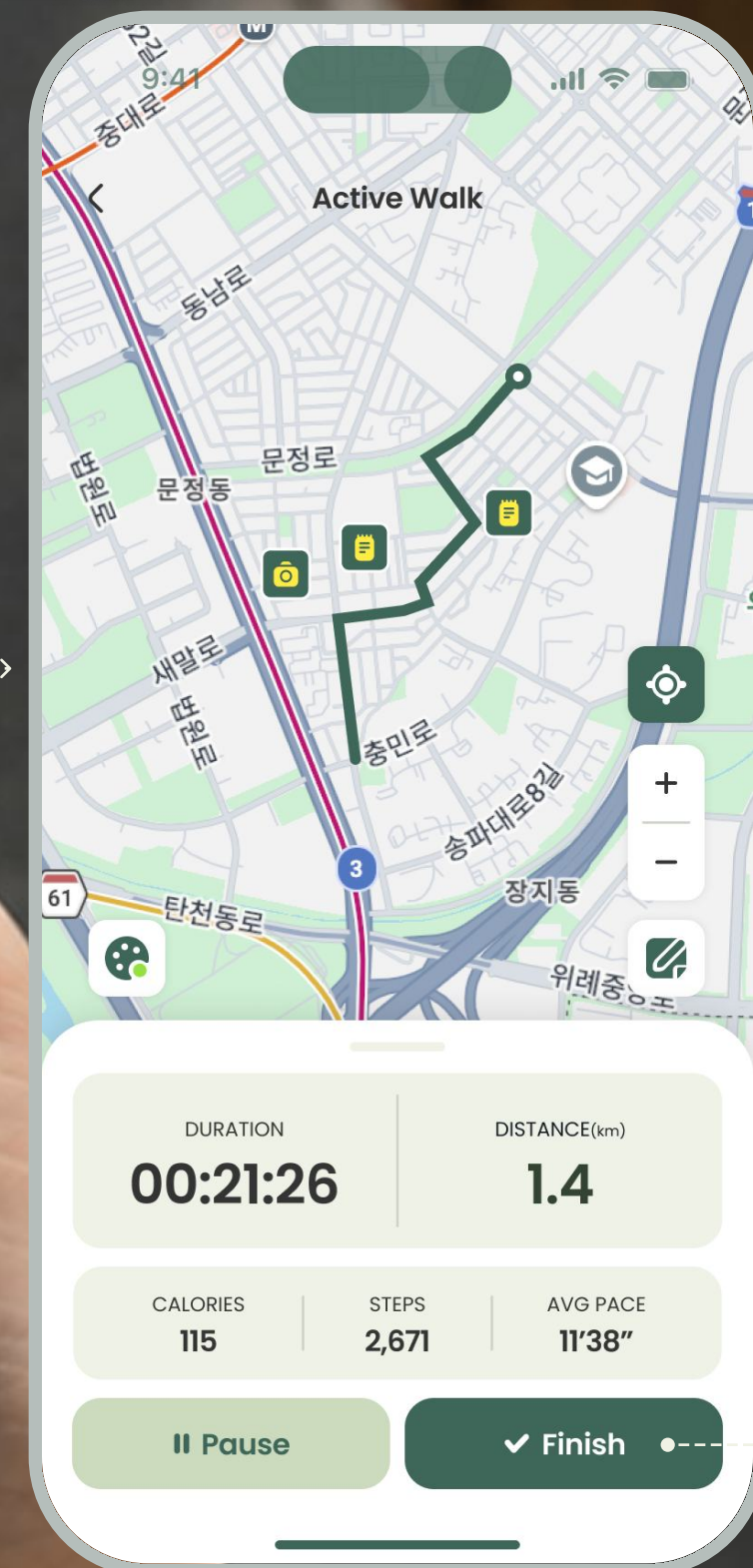
My Walks

걸음 수 대신 걷은 길의 장면이 쌓입니다.
노트 카테고리 걸러, 경험을 기준으로 지난 산책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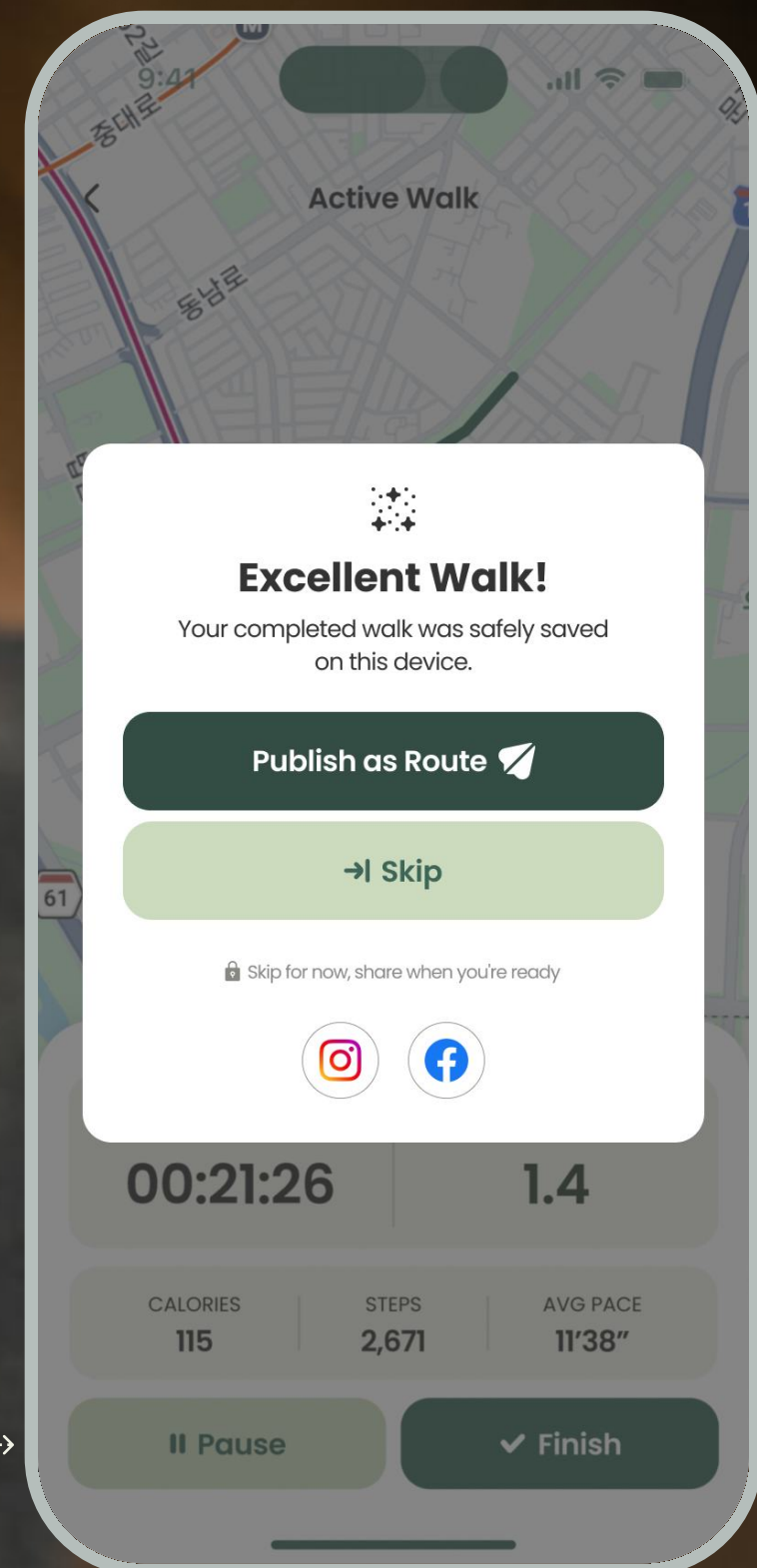
Activity Monitoring

이동 경로가 지도 위에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걷다가 남긴 노트가 그 위치에 핀으로 표시됩니다.
지금 걷는 길과 그 길에서의 순간이 함께 기록됩니다.



Route Publishing

산책 종료 직후 저장 및 공유 액션을 제공하여 기록이 자연스럽게 콘텐츠 생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걸은 길이 모여, 서로의 다음 코스가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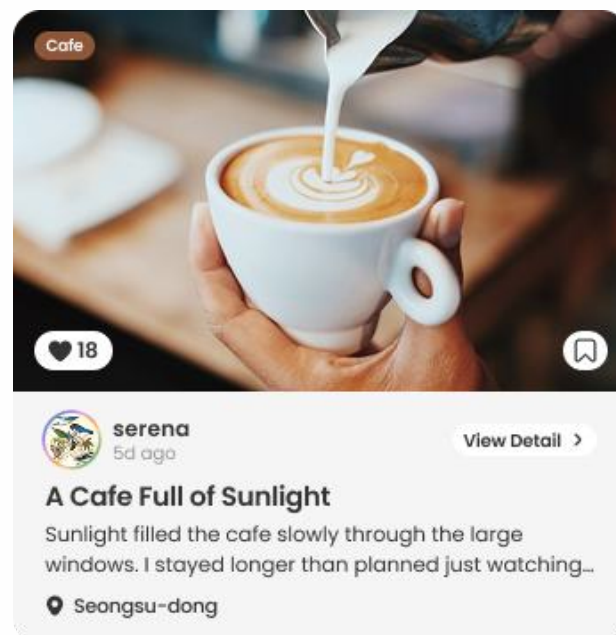
그리기 · 기록 · 게시물로 만들어진 길은 커뮤니티에 모여 다른 산책러의 다음 코스가 됩니다.
거리와 페이스를 비교하는 피드가 아니라, 걸어 보고 싶은 장면을 발견하는 피드로 설계했습니다.

숫자 대신, 이야기로 나누는 산책

카드의 위계를 사진 → 제목 → 이야기 → 장소 순으로 두고,
거리 · 시간 같은 수치를 상세 화면으로 내렸습니다.
사용자는 기록을 비교하는 대신
“나도 저기 걸어 보고 싶다”는 이유로 다음 코스를 고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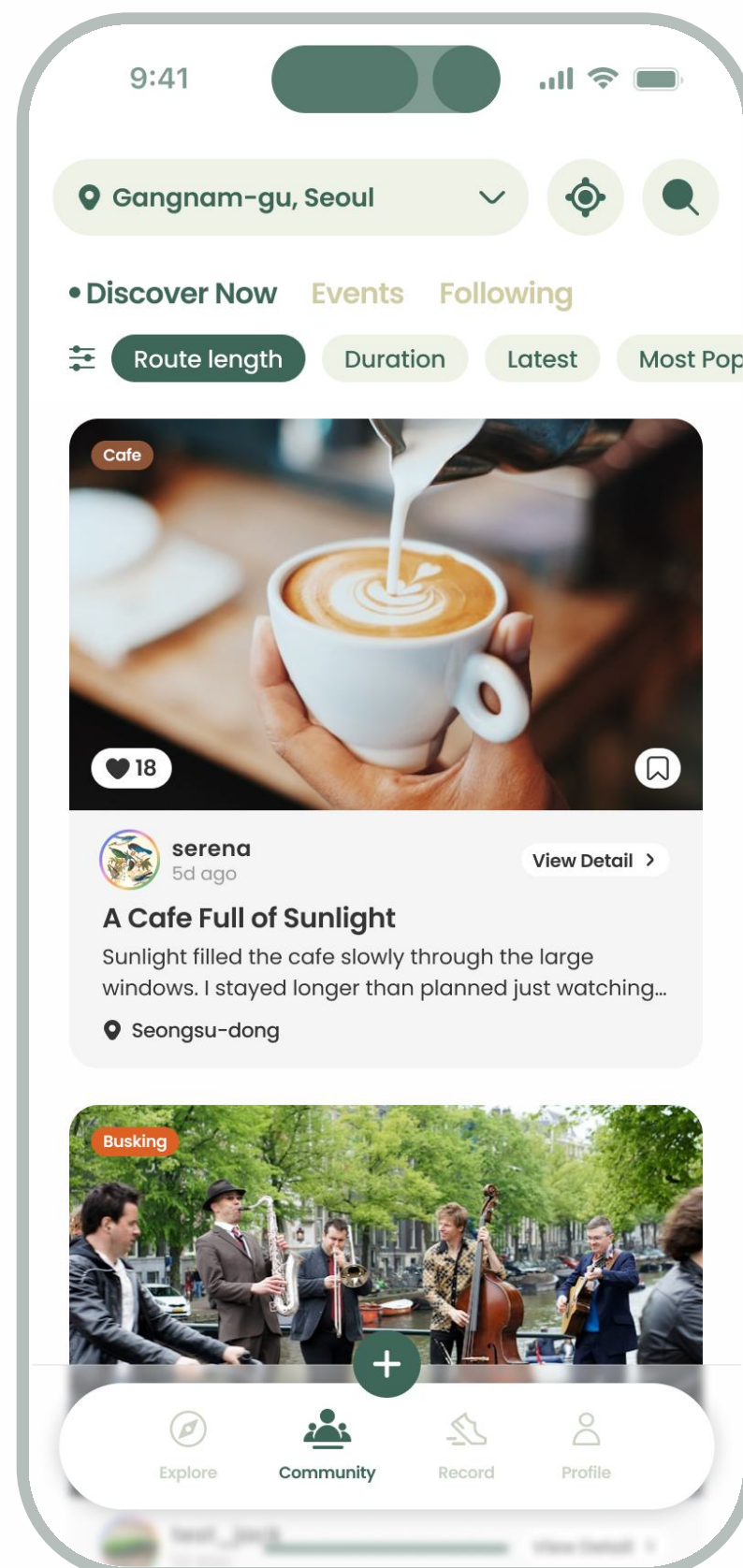
기록을 비교하는 피드



다음 산책을 발견하는 피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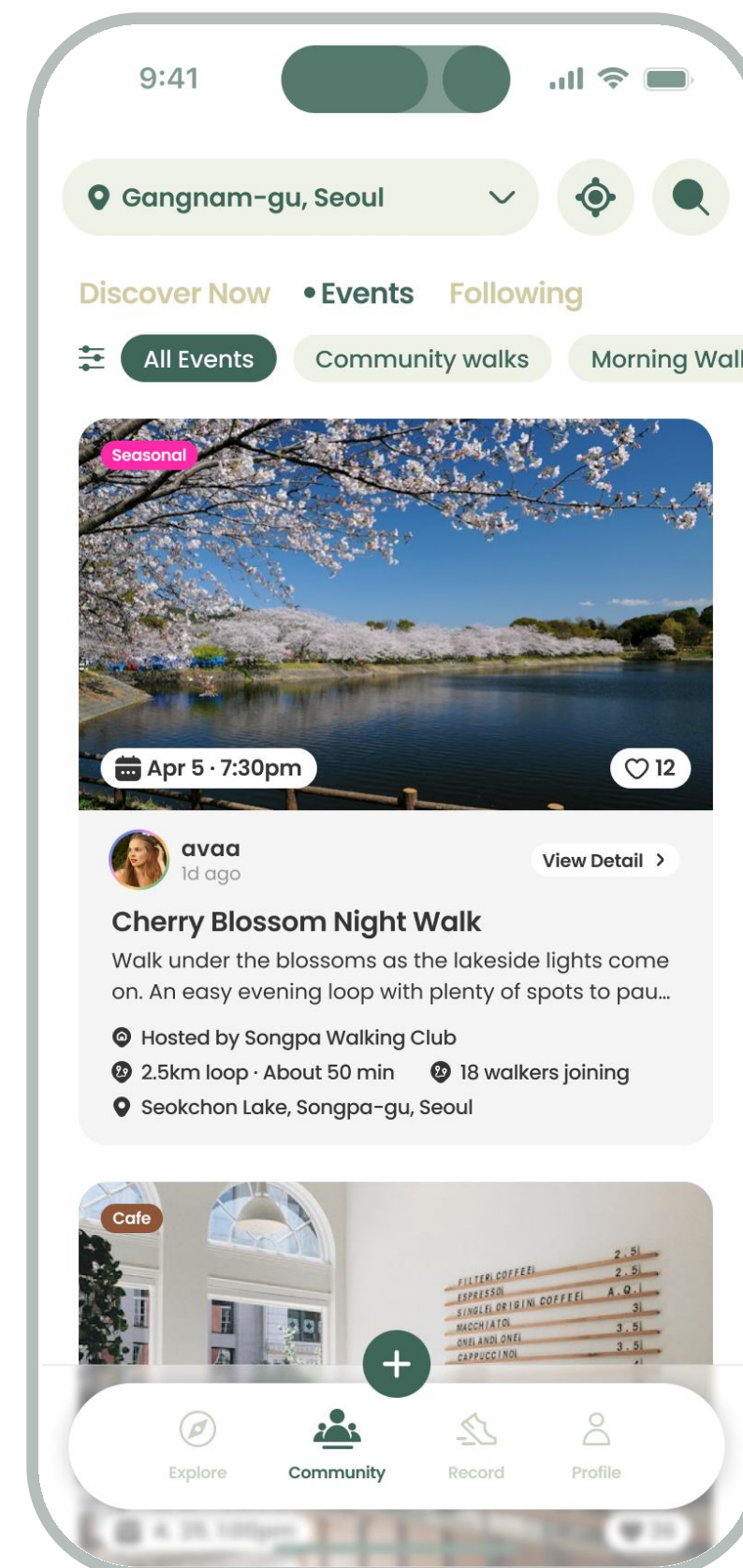
Story-first Feed

사진과 이야기, 장소로 카드를 구성해
수치가 아닌 장면으로 산책을 발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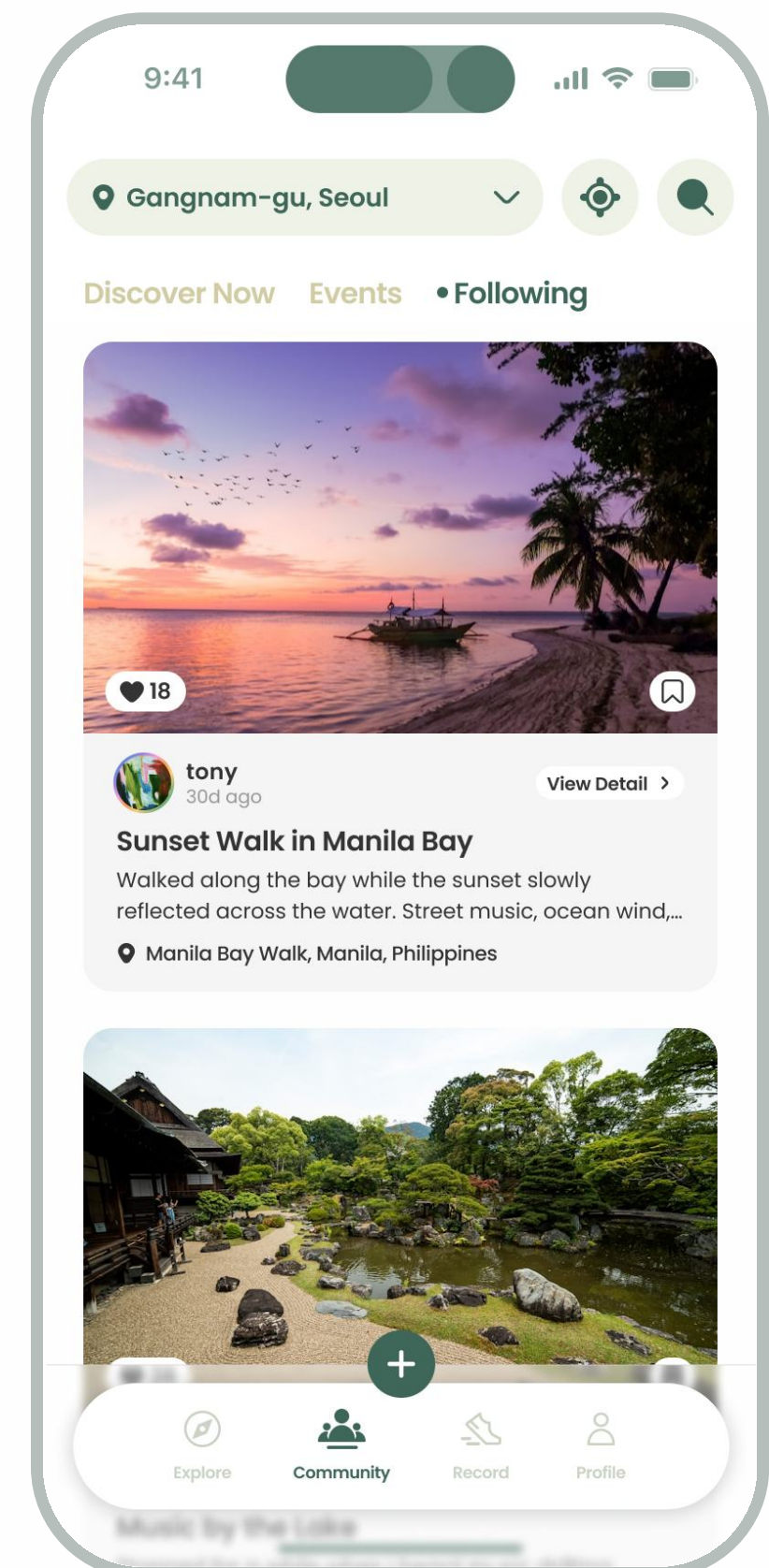
Walk Together

계절 행사·동네 축제처럼 걸어서 가기 좋은 이벤트를
그곳으로 이어지는 코스와 함께 제안합니다.



Following

취향이 맞는 산책러를 팔로우해, 그 사람이
걸은 길을 내 다음 코스 후보로 모아 봅니다.



Component & Color & Typeface

meandly의 아이덴티티 컬러를 정하고, 일관된 스타일로 UI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영문 · 숫자는 가독성이 높고 구조가 안정적인 Poppins로, 한글은 Pretendard로 맞춰
현대적이고 친근한 인상을 전달합니다.

Button

inactive

Create account

Chip

active

Create account

Chip

Note Graphic Icon





Color

#304A45 R48 G74 B69

#3F6759 R63 G103 B89

#D2CCA4 R210 G204 B104

#EFF2E6 R239 G242 B230

#CBD3C4 R203 G211 B196

#8A8885 R138 G136 B133

#FFFFFF R255 G255 B255

#343434 R52 G52 B52

Gradation

Top navigation

168 Main St, Montville QLD... ▾



←

68-1 Okazaki Nishitennocho...



Bottom GNB

+

Explore

Community

Record

Profile



Progress UI

inactive

1K Steps 20P

3K Steps 40P

6K Steps 70P

9K Steps 110P

12K Steps 160P

active

1K Steps 20P

3K Steps 40P

6K Steps 70P

9K Steps 110P

12K Steps 160P

Dynamic Statistics

TIME(min)

DIST(km)

CALORIES

STEPS

62

3.2

218

6,082

Typeface

영문 · 숫자

Poppins Poppins

한글

Pretendard Pretendard